

관광학석사 학위 청구논문

歷史文化資源 訪問動機와 選擇屬性이
觀光客 滿足에 미치는 影響
-경주 대능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慶州大學校 大學院

觀光學科

林 志 垠

2007年 12月

歷史文化資源 訪問動機와 選擇屬性이
觀光客 滿足에 미치는 影響
-경주 대능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指導教授 金 奎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觀光學科

林 志 垠

林 志 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12月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 및 범위	5
II. 이론적 고찰	7
1.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자원	7
2.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	21
3.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	29
4.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 만족	40
III. 연구설계	47
1. 연구모형의 설정	4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3. 조사설계	52
1) 조사의 개요	52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55
3) 조사방법 및 분석 방법	56

IV.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58
1. 조사 표본의 기술통계적 특성	58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62
3. 측정변수간의 관계	70
1) 방문동기와 선택속성간의 관계	70
2) 방문동기와 만족과의 관계	73
3) 선택속성과 만족과의 관계	76
4)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80
V. 결론 및 시사점	90
참고문헌	96
부 록	108
Abstract	111

< 표 목차 >

[표 1]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념적 정의	13
[표 2] 문화적 관광자원의 개념적 정의	14
[표 3] 문화유산자원의 개념적 정의	15
[표 4] 역사문화자원 분류	16
[표 5] 문화유산 분류	18
[표 6] 문화재 분류	18
[표 7] Push - Pull Model	24
[표 8] 관광동기에 대한 주요 연구	25
[표 9]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동기요인	26
[표 10]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	30
[표 11] 역사문화자원 매력요인	32
[표 12] 역사문화자원 매력요인	34
[표 13]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	39
[표 14] 만족이론	41
[표 15] 선행연구 만족측정요인	43
[표 16] 만족 선행연구 종합적인 평가	46
[표 17] 역사문화자원 만족요인	47
[표 18] 경주시 유료관광시설 입장객수	53
[표 19] 대능원 현황	53
[표 20] 설문지의 구성	55
[표 2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61
[표 22] 방문동기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62
[표 23] 선택속성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63

[표 24] 관광객만족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64
[표 25] 방문동기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65
[표 26] 선택동기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66
[표 27] 만족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68
[표 28] 각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69
[표 29] 방문동기와 역사적 가치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71
[표 30] 방문동기와 편의적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72
[표 31] 방문동기와 자원매력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73
[표 32] 방문동기와 서비스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4
[표 33] 방문동기와 이용성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5
[표 34] 방문동기와 비용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6
[표 35] 선택속성과 서비스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7
[표 36] 선택속성과 이용성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8
[표 37] 선택속성과 비용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79
[표 38]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82
[표 39]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82
[표 40]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83
[표 41]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86
[표 42] 방문동기와 자원매력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87
[표 43] 방문동기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87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 문화관광의 수직적 하위단계	9
[그림 3] 관광행동 심리과정	22
[그림 4] 관광자 만족도	45
[그림 5] 연구모형	48
[그림 6] 대능원 방문객 추이	52
[그림 7] 조사대상지점	56
[그림 8]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	83
[그림 9]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	88

I. 서 론

1. 문제제기

개방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경제블록화를 가속화 시키는 한편, 지역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중심의 산업 구조가 1, 2, 3차 산업 간 상호융합으로 발전하면서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이자 지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선·후진국의 구분 없이 자국 문화와 관광자원을 수출하기 위한 관광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고속철도와 같은 SOC의 확충에 의한 교통체계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변우희 외, 2005).

관광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보면 비교적 저렴하며 교육적인 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는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의 관광매력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성을 기초로,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유산 및 전통경관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다(이춘근, 2000; 신상섭 외, 2005).

특히, 자연환경과 연계된 역사문화자원은 교육적 효과 이외에 시각적·미적 개념을 포함한 환경의 확보, 특정인을 회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수익의 증대를 가져온다(Attoe, 1979; 도시정보, 1988).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화된 경관과 활동 및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의 주체성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사회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조경학·민속학·문화재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존 및 보호의 개념으로 주로 다루어졌다(김희정, 2004; 한상열 외, 2006; 이홍종 외, 2006; 최종희, 2007). 그 중 관광학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관광의 한 부분, 혹은 문화재나 유산적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김규호, 2001; 김사현, 2005; 이후석 외, 2006; 최석호, 2006; 한숙영 외, 2007), 역사문화자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소수의 연구만 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유기준, 1997; 이인배 외, 1998; 신지은, 2006).

특히,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및 관광객 만족에 대한 연구는 만족이 재방문과 관계가 있고, 불만족이 다른 사람들의 관광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권정택, 2000; 하광수, 2000; 이해현, 2001; 현용호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 중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는 각 학계를 비롯하여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인 경주는 매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도시로서 현재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수립과 ‘신라왕경의 복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주도사업과 2011년 KTX 개통

및 세계역사도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경주시, 2004; 경주시·문화관광부, 2004; 국토연구원, 2007).

그러나 수많은 역사문화자원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도시로서나 관광도시 그리고 정주공간으로서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김일룡, 2000).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계에서 관광마케팅과 관광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내최대의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관광산업이 왜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재규명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주의 관광산업 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요인에 대한 동기 및 속성은 무엇인가 ?

고속철도시대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지역은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산재되어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매력성과 관련된 관광객들의 동기요소와 자원의 선택요소를 파악하여 역사문화자원에 관한 영향관계에 있는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경주지역이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무수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상호복합적인 방안을 나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방문객의 인지적인 측면(수요자)의 동기와 공급자적인 선택속성 요인이 관광객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하는 것이다.

2. 연구목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경주 관광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실제적인 욕구에 부합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경주지역 관광개발의 여건 및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 및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 차별화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주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의 만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비교 우위적인 요인과 제약요인들의 규명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자원이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방문동기 및 목적지 선택에 관한 중요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실재적인 자료 취득을 위한 사례대상지 조사와 유산관광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방문동기를 파악하고, 소비자 행동모델과 자원의 매력성을 토대로 선택속성을 설정하고자 한

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에 관한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성 및 장소성이 반영된 경주만의 지역정체성이 구현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관광객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관광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대상지는 국내 최대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신라문화권을 대표하며, 전통역사유적자원의 원형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경주지역의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고분군집인 대능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은 현장조사와 문헌연구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현장조사는 역사문화자원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문헌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과 관광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론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론적 고찰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	선택속성	관광 만족



연구의 설계		
연구모형의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사설계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기술통계적 특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측정변수간의 관계



결론 및 시사점		
----------	--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II. 역사문화자원의 이론적 고찰

1.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자원

문화(文化)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례로 스위스 역사학자 Burckhardt(1867)는 문화란 사람들이 정신과 취미를 풍요롭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예술과 학문,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획득한 인식의 총체라고 하였고, Goodman(1967)은 문화를 한 사회집단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류의 선구자인 영국인 Edward B.Tylor(1978)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기술한 바 있다(Godbye, 1981).

그러나 앞서 언급되어진 문화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 속에서도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적이고,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항상 변한다는 문화의 공통된 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한상복 외 1985).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광학에서는 문화관광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지기 이전에는 다양한 용어로 역사관광(historic tourism),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으로 혹은 예술관광(arts tourism)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Myerscough, 1988; Prentice, 1993; Russo and Borg, 2002). 결국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은 문화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행동들의 광의적 개념을 기초로 상호 복합적이며 중첩적인 차원에서 문화관광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문화관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생활의 일부로 여겨지는 지역 또는 사람의 필요로왔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있으며,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유적지와 기념물을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세계관광기구의 연구논문에서는 문화관광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협의의 문화관광으로 “예술문화,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유적지 및 기념비, 자연민속, 예술연구,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의 산물”, 광의의 문화관광으로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 경험, 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한국관광공사, 1995).

한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문화관광에 관한 정의들이 무수히 생산되고 수정되면서 다각적인 입장에서 그 정의가 시도되었다. 그 중 개념적 정의와 기술적 정의로 구분한 Richards(1996)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권을 떠나 문화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정의와 “일상권을 떠나 사적지, 문화 및 예술적 표현물과 드라마 등과 같은 특정 문화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기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김규호, 2002; 재인용).

또한 경험적 부분을 강조하여 나타낸 Hall & Zeppel (1990)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그리고 축제에 자극되어 참여에 기초하는 경험적인 관광”이라 하며, 이때 경험적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경관, 역사적인 장소, 건물 또는 기념물을 방문하는 유적관광도 한 장소의 자연과 역사의 한 부분의 느낌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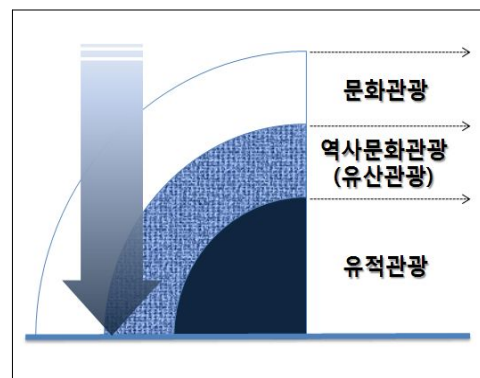
게다가 장소성에 역점을 둔 Fayos-Sola(1997)는 “문화관광은 문화적인 매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이며, 즉 각종공연, 박물관, 전시회와 같은 것으로

음악공연과 문화공연을 포함한 것을 일컫는다.”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Tighe(1991)는 “중요한 요소로서 역사적 장소, 박물관, 시각적 예술품, 그리고 공연예술과 함께 수행되는 여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인 동기에 초점을 둔 Dimitriadi(1999)는 “문화관광은 대안적인 관광형태이자 고품격 관광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광형태로 학습관광, 예술활동, 문화여행, 유적과 기념건조물 방문, 자연, 순례여행 같은 문화적인 동기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이라고 하였다. 또, Silberberg(1995)는 문화관광의 개념을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인 관심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이나 사회공동체, 집단, 문화유산, 특정 장소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특정 정주지를 떠나 관광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히 관광활동의 동기와 목적을 강조하였다(변우희, 2007; 재인용).

이와 같은 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문화관광은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고, 문화적 동기를 가지며, 문화성을 가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험적인 관광행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영국의 정치학자 Satori(1970)의 ‘추상화 사다리’분석 수준 정의를 통하여 문화와 역사, 유산 및 유적이라는 용어를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광(風光)·풍속(風俗)·사적(史蹟) 등을 유람(遊覽)하는 일’이라는 관광개념을 부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타내었다.



[그림 2] 문화관광의 수직적 하위단계

이는 수평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 수직적인 포함관계의 하위 범주에 속하

는 개념을 인지한 것으로 문화관광에서 역사문화관광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우선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인배 외(1998)는 “타국이나 타 지역에서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전통적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 등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성이 강한 자원을 주된 관광대상으로 하는 제반활동”이라고 하였고, Hampton(2005)은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부분 즉, 전통적인 유적물과 유적물을 포함한 장소로서 사회적 구조의 한 부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관광활동”이라 하였다.

또한, Nuryanti(1996)는 “문화유산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핵심적 과제로 해설을 통한 과거의 연출과 재구성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유물에 대한 문화관광”이라고 하였으며, 게다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산관광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이러한 견해는 역사성을 가진 대상이나 장소에 관광객이 역사문화적인 자원의 가치 인식 및 매력성을 인지하며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역사문화관광이라고 본, 앞서 언급된 제 학자들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사문화관광을 역사적 유물이나 장소에만 국한한 역사관광과는 다르게 역사관광의 개념에 관광객의 개인적인 심리적 관계성까지 나타낸 유산관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Ashworth,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역사문화관광을 Nuryanti(1996)의 견해에 따라 유산관광으로 보고 Poria(2003, 2006)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관광은 전통적이거나 역사적인 장소로써 범주화되는 장소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산(heritage)이나 역사적인 장소(historic place)는 역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 진다. 이러한 접근의 주목할 만한 것은 유산관광이 문화(cultural)나, 자연(natural) 그리고 건조물(built)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산이란 역사성에 중점을 둔 유적(유물)이나 이를 연계시킨 장소라는 것이다.

둘째, Strauss와 Lord(2001)에 따르면 “역사는 여가를 위한 여행에 있어 매우 대중적인 주제가 되며, 그 안에 이루어지는 활동 등은 오늘날의 인공구조물과 연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소안의 내용물들은 현상(phenomenon)과 연관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oria, 2003). 즉, 그 장소 안에서의 활동 즉 경험이 유산관광의 한 부분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관광을 위한 동기와 연결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Poria는 두 가지의 접근 형태를 포함하여 관광은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부터 초래한다는 것을 기초로 개인의 동기, 잠재적인 행위, 장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역사성이라는 공급자적인 측면과 개인지각과 관련된 수요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이 진정한 유산관광이라고 하였다.

또한 Mishaal(2002)은 유산관광은 일시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것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는 Uriely, Israeli, Reiche(2002)의 관광객과 현존하는 전통 유산 사이에 관광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유산자원을 공급자적인 측면인 대상, 즉,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유적(유물)이라고 본 Poria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문화관광은 넓은 의미의 문화관광의 일부이자 유산관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대부분의 관광 목적지 선정에 있어서 문화적인 속성을 포함한 역사자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Nuryanti의 유산자원은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의 전체 구성요소 중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인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서 제시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견해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명시되어지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되는 ‘역사’는 “인간이 거쳐 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역사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인류가 지상에 태어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온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사학, 2002). 이러한 역사적 일과 발전의 과정은 인류의 모든 시대에 여러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문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준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문화’는 역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한범수 외, 1994). 자원 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은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태계내의 유·무형의 모든 자원으로써 보존,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역사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장춘, 1974).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타국이나 타 지역에서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성이 강한 자원’을 일컫는다(여정태 외, 1998).

한편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념적 정의

가 내려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첫째, 유산이나 자원 즉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문화재나(Bonik, 1992; 권상준, 1996; 이창언, 2007), 해당지역 내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오세경, 2001; 오민근, 2003).

이는 대상 자체만을 인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자원에서 발생되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변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협의적인 자원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념적 정의

분류	연구자	개념적 정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Bonik(1992)	유적과 기념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자원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량적 조사에 매우 유용한 특수한 유산이나 자원
	권상준(1996)	역사와 전통을 표출하는 유물과 유적
	오세경(2001)	도시 또는 지역이 지닌 모든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오민근(2003)	해당 지역의 전통건물, 오래된 가로 패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전설이 존재하는 장소 등 유무형의 자원
	이창언(2007)	그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오랜 문화재

자료: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 정리

둘째, 문화적 관광자원의 개념은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관광의 매력물로서 인식한 연구가 있고(Fayos-Sola, 1997; Poria, 2003; Hampton, 2005; 이항구, 1993; 이양섭, 1994; 박명희, 1999), 관광 자원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인식한 연구가 있다(박성수, 1999; 이상춘, 2003; 김정옥, 2007). 또 이러한 두 가지의 매력성과 가치적 측면을 모두 강조한 연구가 있다(김훈구, 1995; 서용은, 2003).

그러나 연구자의 인식정도나 대상여부에 따라 전통유적자원이나 문화유적자

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개념적 측면에서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특성에 따른 변형된 용어 사용과 국외 자료의 인용에 따른 해석상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원을 매력성이나 가치적인 무형적 개념을 도입하여 제시한 것으로 자원의 매력속성이나 보존 및 보호와 관련된 자원해석 시 유용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표 2] 문화적 관광자원의 개념적 정의

분류	연구자	개념적 정의
문화적 관 광 자 원	이항구(1993)	인간의 생활양식이 관광적 매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이며, 인위적 관광자원 또는 인공적 관광자원
	이양섭(1994)	인류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유산과 고 유물의 특성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힘
	Fayos-Sola(1997)	문화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있는 자원
	박성수(1999)	인간의 손이나 정신적인 힘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인위적이 자원이며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박명희(1999)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과 관련된 일련의 인간 산출물
	김훈구(1995)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관광 매력물
	Poria(2003)	전통적인 역사 매력물로서 관광객에게 의미부여가 된 장소가 지각된 자원
	이상춘(2003)	민족문화의 유산 특히 가치가 뛰어난 자원
	서용은(2003)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국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매력을 지닐 수 있는 자원
	Hampton(2005)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역사적 자원
	김정옥(2007)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국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

자료: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 정리

셋째, 문화유산자원을 자연유산(natural heritage)과 문화유산(culture heritage), 인공유산(built heritage)으로 구분하여 예술품과 역사적 건조물의 매력적 측면과 자연여건 모두를 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Tassell, 1990;

Hal, 1992; Yale, 1991). 또한 유산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자원이 문화유산자원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Hollinshead, 1998; Poria, 2006).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인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대상을 주변의 인공물과 완충지역인 환경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표 3] 문화유산자원의 개념적 정의

분류	연구자	개념적 정의
문화유산자원	Hollinshead(1990)	지역문화적 전통, 지역사회의 유산으로의 관광매력물
	Tassell(1990)	과거로부터 남겨진 고고학적 지역과 문화유물 및 민속품 등의 기존적인 자원과 자연문화유산
	Yale(1991)	역사적 건축물에서 예술품 및 아름다운 경관까지의 물려받은 유산 자원
	Hall(1992)	역사적 건물, 기념물, 과거 폐허건물, 과거 서정적 음악과 공연, 과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 등의 자원
	Poria(2006)	유산이라 지각할 수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자원

자료: ‘SIT 미래관광의 대안모색(이경모, 2005)’을 기초로 연구자 정리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다루어 졌다. 하지만 이 범주안의 각 용어들의 개념 내에는 하위범주 속에 부합되는 수직적 개념들로 문화와 역사, 유산 및 유적, 유물에 대한 장소성이 내재된 자원들이 속해 있다.

따라서 관광객이 인지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및 유형적, 인공적 관광매력물을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통칭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된 개념에 대한 분류는 관광자원분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광의적 개념으로 문화적 관광자원 형태로 분

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적-사적, 도시/무형-생활, 민속, 행사로 분류한 것(日本國制觀光年記念行事協力會, 1967)과 문화유산, 문화적 시설로 분류한 것(末武直義, 1974)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절경, 해안, 고대유적, 역사적 건축물, 산악, 강으로 분류한 연구(A.J.Burkart and S.Medlik, 1982)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한 연구(김진섭, 1990; 이근, 1998)가 있다.

반면에 역사문화자원 유형분류로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으로 나눈 분류가 있으며(오세경, 2001), 인공자원 분류로 사원, 카지노, 기념물, 역사적 건축물, 오락공원으로 나누어 나타낸 연구가 있다(Pearce, 1982).

이와 같은 관광자원 분류 중 역사문화자원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표 4]와 같다.

[표 4] 역사문화자원 분류

분류	연구자	분 류
역사문화자원	오세경 외(2001)	경관자원, 전통역사자원, 근대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무형자원
	律田昇(1964)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원, 기념물
문화적관광자원	日本國制觀光年記念行事協力會(1967)	유적-사적, 도시/무형-생활, 민속, 행사
	안중윤(1972)	미술공예품, 건축물, 조각
	末武直義(1974)	문화유산, 문화적 사실
	Robinson(1976)	역사문화유적
	日本觀光協會(1976)	사적, 절, 성곽, 정원, 공원, 역사경관, 향토경관, 연중행사

<표계속>

분류	연구자	분 류
문화적 관 광 자 원	A.J.Burkart & S.Medlik(1982)	절경, 해안, 고대유적, 역사적 건축물, 산악, 강
	한국관광공사(1983)	고고학적유적, 사적, 사찰공원
	김진섭(1990)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근(1998)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김정옥(2007)	고고학적유적, 사적,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박물관, 미술관, 기타 문화시설
인 공 자 원	Pearce(1982)	사원, 카지노, 기념물, 역사적 건축물, 오락공원

자료: ‘관광자원론(김홍운·김사영, 2005)’, ‘관광과 문화(이용규·김은희, 2004)’, ‘문화관광론(주종대, 2007)’, ‘장소마케팅(이진희, 2006)’을 기초로 연구자 정리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개념과 분류에 따르면 문화관광자원의 문화유산 및 유적문화재가 역사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는 상충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이 국내·외적으로 관광자원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분류에 따른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문화재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유산과 문화재의 등록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문화유산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을 뜻한다. 이러한 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

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일컫는다(유네스코 세계유산, www.unesco.or.kr). 이 분류중 문화유산자원이 역사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문화유산 분류

문화유산	
유적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
건축물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장소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http://www.unesco.or.kr/>) 참조

둘째, 문화재란 문화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으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커서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종류와 가치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나뉘어 관리되며 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보호구역으로 나뉘기도 한다.

[표 6] 문화재 분류

문화재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보호구역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문화재

<표계속>

문화재	
등 록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 한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1. 보물 : 건조물(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 전적·서적·고문서(계통적, 역사적, 판본학적, 인쇄사적 가치), 회화·조각(특이성, 우수성, 문화성), 공예품(우수성, 용도특이성), 고고자료(학술적), 무구(군사성, 희귀적 가치) 2.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제작연대, 보존가치, 유래성, 특이성, 인물과 관련성) 3. 사적 : 유사 이전의 유적,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분묘·비 등(학술상 가치) 4. 명승 :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 역사문화경관, 경승지(관상상, 미관상 가치)

자료 : 2007년 문화재보호법 참조 - ()안은 지정기준

위의 표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기준 및 국가지정문화재중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앞서 언급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4가지의 항목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은 문화관광의 한 부분으로써 국내·외적인 의미에서 가치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관광자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의 매력을 인식하는데 있어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들로 작용되어진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은 여타의 다른 자원과 비교해 볼 때 고유성이 내재된 자원으로 인식되어 지역의 소속감과 의식의 함양을 통해 관광객 만족을 유도 할 수 있으며(안윤지, 2003), 부가적인 행사나 해설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은 더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선조들의 얼과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전통을 학습시켜 주려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관광지의 교육적인 매력요소로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근래에 들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목적지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 방문동기와 관광만족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자원자체의 매력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자의 대상이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매력요인들이 연구대상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한계점을 인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방문동기와 자원자체의 매력적 특성과 관계된 경주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선택속성에 관한 관광객 만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

동기분야는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는 비교적 거의 없었다(Lundberg, 1990).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관광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 행동에 참여하거나 하려는 선천적인 사회·심리적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Beard·Ragheb, 1980; Iso-ahola, 1984). 또한 인간행동의 원인이라고 정의하여 규명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심리학의 한 부분으로 보고(손대현, 1993),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인지과정과 특질이라 하였다. 따라서 동기는 모든 행동을 추진하는 힘이기 때문에 관광행동 이해와 목적지 선택과정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Uysal and Hagan,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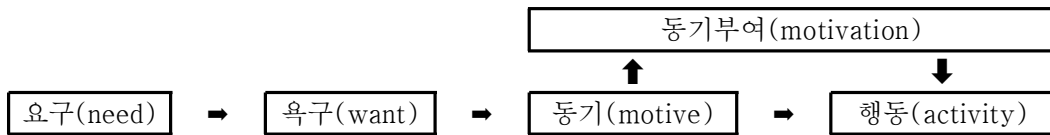
특히, 문화적 요소를 추구하는 문화관광객은 동기 및 구매행동에 있어 일반관광객들과 달리 관광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이정규 외, 2001) 문화관광객을 동기에 따라 세분화하고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관광객의 선택과 만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Beeli & Martin(2004b)의 정의에 의하면, 동기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기대되는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욕구라 하여 정서적 요소와의 밀접한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다(Gartner, 1993).

또한 Stabler(1988)는 관광객들은 사회심리적인 다양한 이유와 동기에 의해 관광에 참여한다고 보고 사회·심리적 동기는 관광객들의 관광행동과 관광지 선택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관광지 선택과 방문동기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파악하였다(김덕경 외, 2004).

이처럼 관광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관광동기를 관광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원동력이라 하면서 일반적으로 관광욕구라 부르며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천적인 힘이라 하였다.



[그림 3] 관광행동 심리과정

자료: A. D. Szilgy, Jr, and M. J. Wallace(1983), p80. 김미영(2004) 일본여성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여행상품속성이 만족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북아국제대학원, 19p 재인용

따라서 요구(need)에 의해 욕구(want)가 생기고, 그 욕구가 한 단계 발전을 하면서 동기가 되며 동기부여를 통해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하겠다. 결국 관광의 심리연구는 동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요소들은 관광행동을 통해서 관찰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으며, 관광명소와 연관된 상황적 차원에서의 관광동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화재 관리 및 보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민창기, 2001).

이러한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내면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힘들고 단지 추론을 통해 논의되어지기에 관광행동과 동기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광동기 이론들은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모델로 이루어지며, 이것들은 행동의 단순한 구분의 파악과 폭넓은 예측을 위한 개인적이고도 상황적인 요인들에 기초를 둔다(이명자,

2002). 즉, 접근방법 및 변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동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동기이론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론들을 기초로 분류되어진 각각의 요인들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동기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여러 동기이론들 중 가장 잘 알려진 Maslow의 요구위계(hierarchy of needs)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은 ‘생리적 요구, 안전의 요구, 사회적 요구, 존경의 요구, 자아실현의 요구’라는 다섯 가지의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요구는 그 강도와 충족에 있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즉, 생리적 요구로부터 자아실현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요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그 다음 차원의 요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지적요구와 미적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하종완, 2005). 따라서 이 요구 위계이론을 확장하여 제시한 Mill & Morrison(1985)의 관광동기 7단계 동기모형 이론이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진다.

한편 두 가지 동기 차원 즉, 일상적인 환경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와 심리적 내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동기를 근거로 인간을 여행으로 이끄는 본질적인 힘에 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회·심리적 관광동기이론이 있다.

또한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양측면적 접근을 강조하여 관광행동은 관광객 자신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며 관광지 속성에 의해 유인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리라 판단되어진 Push-Pull Model이 있다(Dann, 1977; Crompton, 1979; McCabe, 2000).

다음[표 7]은 선행연구자들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을 토대로 동기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하고 요인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Push - Pull Model

	Push(추진) 요인	Pull(유인) 요인
이론적 분석	관광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한 가지 욕구에 맞는 목적지를 찾아 선택하게 되는 내부에서 생성된 심리적 동기	비슷한 관광특성을 갖고 있는 관광지 중에서 관광자로 하여금 관광목적지를 특별히 선택하도록 하는 독특한 지역 또는 특성
Crompton의 분류	- 일상생활에서의 탈피 - 모험과 자기 평가 - 휴가 - 향수	-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함 - 동료의식의 강화 - 사회적 교류
	여행동기	매력물의 유형
Hudman의 분류	- 건강 : 물리적, 정신적 - 호기심 : 문화, 정치, 사회, 공공단체, 경관 - 스포츠 : 직접참여와 관람 - 쾌락추구: 여행, 예술, 음악, 오락, 도박 - 정신적, 종교적 : 순교, 정신적 집회, 역사 유물조사 - 전문적 : 과학박람회, 회의참석, 산업여행, 교육, 연구 - 친지, 조상 : 고국방문 - 자존	- 문화적 경관 : 역사적 건축물, 기념물, 박물관, 민속적 경관, 교육적 장소, 종교적 건물 - 문화적 전통 : 축제, 예술, 수공예, 민속무용과 음악, 원주민의 생활과 습관, 언어, 종교 정치형태, 과학 - 물리적인 요인 : 기후, 경치, 야생관찰(사파리, 수족관), 사냥과 낚시(참여) - 오락적 요인 : 스포츠(참여, 관람), 놀이공원, 유람, 도박
Uysal 와 Hagan 분류	- 동기부여(AIO요인) : 일상탈출, 휴식 및 휴양, 자존심, 명성·명예, 건강, 모험심, 사회적 상호작용, 편익, 흥미 - 사회·경제적 및 인구 통계적 요인 : 연령, 성별, 소득, 교육, 가족규모, 라이프스타일, 인종, 집단, 직업, 제2의 주택소유, 시장지식	- 관광지 및 시설환경 : 기후, 역사 관광지, 경관미, 일출, 해변, 눈, 문화행사, 계절 축제, 레크리에이션 기회, 체험 관광 등 - 접근성·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 판매된 이미지, 형성된 부정적/긍정적 목적지 이미지, 서비스 품질, 시설의 품질

자료 : 박원식(2000), 국내관광목적지 선택연구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청구논문, 호남대학교 경영대학원, p12 참조하여 재구성.

이러한 이론들을 기초로 관광동기는 일찍이 Lundberg(1971)에 의해서 18개의 동기로 세분화 되었으며, Crompton(1979)에 의해 9개로 요인화되면서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Mackintosh(1980)는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 대인적·사회적 동기, 지위와 지존에 대한 동기요인을 설명하고 있고, Mayo & Jarvis(1981)는 교육과 문화, 일탈 및 쾌락, 인종적·유산적인 것, 기타 등에 관련된 18가지 동기를 분류하였다(박동진 외, 2004).

또한 자극 추구, 가족모임, 사회적 교류,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 학습 및 발견, 일상생활에서의 탈출, 향수의 8가지 범주로 동기를 도출하고(Ralston·Crompton, 1988), 휴식동기, 모험동기, 지식동기, 사교동기, 그리고 위신통기 등 5개의 방문동기요인 분류가 있다(Baloglu·McCleary, 1999).

[표 8] 관광동기에 대한 주요 연구

연구자	대 상	분류내용
Thomas(1964)	관광동기분류	교육문화, 휴식과 즐거움, 종족지향, 기타 동기로 분류
MacIntosh(1977)	관광동기분류	신체적, 문화적, 대인적, 지위적 동기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Dann(1977)	이론을 통한 관광동기 분류	유인자(Pull factor), 추진자(Push factor)
Crompton(1979)	질적자료를 근거로 관광동기 차원 분류	사회심리적 추구차원(일상탈출, 자기탐색과 평가, 이완, 지위, 퇴행, 가족관계 고양, 사회교류 촉진 등 7가지), 문화적 추구차원(신기성, 교육 등 2가지)
Mckintosh(1980)	관광동기분류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 대인적·사회적 동기, 지위와 지존에 대한 동기
Mayo & Jarvis(1981)	관광동기분류	교육과 문화, 일탈 및 쾌락, 인종적·유산적인 것, 기타 등에 관련된 18가지 동기 등으로 분류
Pearce(1988)	욕구위계모형 제안	Maslow 욕구 위계이론을 적용한 욕구 경력의 위계 구조
Ralston & Crompton(1988)	관광동기분류	자극 추구, 가족모임, 사회적 교류,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 학습 및 발견, 일상생활에서의 탈출, 향수의 8가지 범주로 동기 분류
Ross & Iso-Ahola(1991)	관광동기 차원 양적 구분	유명지 방문, 지식증대, 선호대상지 방문, 탐방, 역사학습, 사회교류, 일상도피, 충동적 결정, 기념품 쇼핑 등 9가지
Lee & Crompton(1992)	동기 척도 개발	자극추구성향, 스틸, 일상탈출, 따분함 즐기기, 놀람 등

<표계속>

연구자	대 상	분류내용
Mill & Morrison(1992)	이론을 통한 관광동기 분류	Maslow 욕구 위계이론을 확장 2단계를 추가(지적 욕구, 미적욕구)
Fodness(1994)	질적·양적자료를 근거로 관광동기 척도 개발	지식기능, 효용기능(처벌최소화, 보상최대화), 가치 표현 기능(자아고양, 자기존중감 차원)
Glasson(1994)	관광동기분류	건축물, 역사와 전통, 주민의 친절과 물가 편의시설 요인
Schneider & Backman(1996)	관광동기분류	매력성, 외생요인, 시간유용성
Baloglu & McCleary(1999)	관광동기분류	방문동기요인, 휴식동기, 모험동기, 지식동기, 사교동기, 그리고 위신동기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
Mackintosh(1999)	가치분석을 중심으로 관광동기분류	편의 인지 과정, 감정 동요 과정, 숙고 과정, 비사고적 부문
Poria(2003)	유산관광동기분류	감정적동기, 교육 및 지식추구 동기, 오락동기, 휴식동기
Poria(2006)	유산관광동기분류	아이들의 중요성, 교육의 공헌 정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 역사적 배경, 대상에 대한 지식

자료 : 이명자(2002)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한편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유산관광지에 대한 관광동기를 살펴보면 유산 관광지의 관광동기를 가치분석을 위한 문화관광객들의 편의 인지 과정, 감정 동요 과정, 숙고 과정, 비사고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Mackintosh, 1999). 또한 건축물, 역사와 전통, 주민의 친절과 물가 편의시설을 요인으로 구분하고(Glasson, 1994) 유산관광지 동기를 크게 매력성, 외생요인, 시간유용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Schneider·Backman, 1996).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광동기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연구들에 사용되었던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자별로 또는 시대별로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동기이론들을 기초로 다양한 동기 요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sh & Pull Model을 토대로 Poria(2006)에 의해 제시

된 방문동기요인과 유산자원의 매력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자원 측정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Poria, 2006). 이는 한정된 공간의 유산자원을 대상으로 유산방문 동기와 향후 관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시할 본 연구자의 견해와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고, 2000년도 이후부터 매해 유산관광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Poria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명확한 개념의 체계를 잡은 논문이라 판단되어 (Poria, 2007)와 함께 논의한 바를 반영하였다.

Poria(2003, 2006)는 유산관광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자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추진요인(Push)과 유인(Pull)요인에서 추진요인을 수요자적 인 측면 탈출이나 욕망, 휴식이나 휴양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로 보고, 유인요인을 문화적 매력과 관광자원의 매력성으로 본 것과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기요인 측정항목에 대해 유산관광의 4가지 동기요인을 감정적인 느낌에 대한 동기, 교육 및 지식추구와 관련된 동기, 오락동기 와 휴식동기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광객의 지각과 방문패턴에 의거하여 동기수준을 선택한 것으로 지각한 그룹과 지각하지 않은 그룹들에게서 4가지의 방문동기에 관한 차이를 입증한 것을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2006년도 연구결과 오락동기항목이 유산관광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광객에게 인지되지 않은 요소로 나타남에 따라 감정과 관련된 동기 및 지식 동기 그리고 그 외적인 동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한계점을 느낀 Poria(2006)는 지각과 방문동기의 관련성을 더 세분화 하여 5가지의 동기 요인으로 나타내었다. 그 요인은 아이들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헌 정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역사적 배경과 대상에 대한 지식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산관광의 방문동기를 연구대상에 관한 자원의 매력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내적 감성에 의한 감성적 동기와 관광방문동기의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는 외적동기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이라는 대상의 특수성과 이슈와 되는 사회문화적인 흐름에 의해 발생되어진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 동기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9]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동기요인

동 기	세부동기요인
감성적 동기	▪ 역사적 감흥을 느끼기 위해(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데 있어서의 감흥) ▪ 유산자원에 일체감(몰입) 느끼기 위해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교과서 등 문헌을 통한 일체감 형성) ▪ 유산자원이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후세에게 전승되어야 할 유산)
외적 동기	▪ 일상탈출을 위해서 ▪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해서 ▪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서(세계문화유산지구)
지식추구 동기	▪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교과서 여행) ▪ 역사문화자원 자체의 지식추구를 위해서(신라고분군) ▪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알고 싶어서(신라 왕족 묘제 문화) ▪ 역사문화자원 배경역사를 배우기 위해서(고분군의 역사 및 신라 시대 배경)

자료 : Poria(2006)의 유산관광 방문동기요인을 기초로 연구자 정리

3.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객의 욕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 동기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속성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대안관광으로 인식됨에 따라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Getz, 1997). 또한 역사문화자원이 지닌 여러 가지 선택속성이 방문객에게 방문 동기를 부여하여 만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운식, 2005).

즉, 방문객의 동기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Mohr 외, 1993) 선택속성에 대한 각각의 평가 역시 만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택속성을 잘 기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주현식, 2000).

속성이란 용어는 Lancaster가 소비자는 상품자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의 집합(bundle)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한데서 유래하였으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 2004; 채인용). 그러므로 선택속성이란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물리, 사회적 특징이며(소국섭, 2005), 관광자가 대상을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중요도와 선택하여 이용하고 난 이후에 지각되는 만족도를 일컫는다(김수진, 2004).

이를 근거로 선택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오락 및 쇼핑시설,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과 음식의 5개 주요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17개의 하위특성에 대한 관광전문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결과 자연경관, 부대시

설,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이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속성으로 도출 되었다 (Var & Turgut & Beck & Loftusl, 1977).

또한 관광속성을 욕구만족차원, 사회적 차원, 여행능력차원으로 구분하여 관광지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하였으며(Crompton, 1979), 주제공원 선택에 있어 13개의 매력요소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교육성, 신기성, 자연성 순이라고 나타내었다(McClung, 1991).

그리고 관광매력속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친절성, 해변, 비용, 식음료시설, 숙박시설, 캠핑시설, 해변상업지구, 자연경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Neuman & Reichel ,198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선택속성
Carlson(1976)	관광목적지 선택의 매력속성	방문의 용이함, 편안한 접근성 여부, 현지의 거래가격, 관광활동 간의 매력성
Var, Turgut, Beck, Loftusl(1977)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오락 및 쇼핑시설,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과 음식의 5개 차원과 17개 하위특성
Ritchie & Zins(1978)	특정관광지 매력속성	경치, 지역주민의 태도, 적당한 숙박시설, 휴식과 긴장해소, 문화에 대한 흥미, 음식, 수상스포츠, 쇼핑시설, 유흥, 골프와 테니스
Crompton(1979)	관광목적지 선호도	욕구만족차원, 사회적 차원, 여행능력차원
Neuman & Reichel(1980)	관광매력성	지역주민의 친절성, 해변, 비용, 식음료시설, 숙박시설, 캠핑시설, 해변상업지구, 자연경관

<표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선택속성
신도길(1990)	관광지 속성	자연경관, 기후, 위치, 지역문화특성, 역사유적, 수상스포츠, 옥외활동의 기호, 숙박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휴식휴양시설, 지역주민의 친절, 교통편의 비용
McClung(1991)	주제공원 선택속성	숙박, 기후, 어린이 유무, 혼잡도, 주제공원의 선호, 주제공원의 비선호, 비용, 전시회 매력물, 자연 서식지의 동물, 일반적인 볼거리와 오락, 동물쇼, 탑승물
박정민(1995)	여행상품의 속성분류리스트	관광지, 숙박, 교통, 관광활동, 식사, 쇼핑, 선택관광, 여행사
김향자(1997)	휴가목적지 선택결정	위락시설, 볼거리, 특색 있는 먹거리, 쇼핑거리, 수욕가능, 수려한 자연경관,
Joseph. S, Chen & Dogan Gursoy(2001)	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충성도 측정	가격, 안정성, 기후, 계절, 거리, 쇼핑, 청결함, 역사, 경치, 오락, 문화, 친절함, 숙박, 언어, 매력성, 음식, 교통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이러한 관광지 선택속성은 유·무형의 모든 요소들을 관광대상지 내에서 관광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대상지 선택의 결정인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자는 연구대상이나 혹은 속성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와 관광을 유발하는 포괄적인 매력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변화된 선택속성은 자원자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매력요소들의 결합으로, 관광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역사문화자원 매력인자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선택속성은 자원에 대한 매력요소로 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 인자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매력요인을 살펴보면, 이근(1998)은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태도에 의해 직관적 태도를 예술성과 종교성, 지적태도를 유용성과 학문성으로 나누어 가치인식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

며, 문화적 관광자원의 가치는 예술성과 학문성에 대한 가치로 집약된다고 하였다(이근, 1998).

그리고 유수현과 진병렬(2002)은 경복궁의 관광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 방법을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교육적 상징성과 전통문화로서의 상징성, 보존성과 예술성 및 공간성을 대상으로 각 가치별 측정항목을 제시하였고, 자원의 가치 중 예술성과 역사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덕수궁의 문화관광자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원옥과 서용은(2003)은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문화자원의 예술성과 공간성, 역사성, 상징성 이외에 관광활동성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반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이창언(2007)의 연구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통해 역사적·문화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진정성, 실현가능성, 지속성을 중심으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매력요인만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표 11]와 같다.

[표 11] 역사문화자원 매력요인

연구자	요 인	종합(27개)
Harris(1972)	역사성, 예술성, 박물관	역사성, 예술성,
Carlson(1976)	역사성, 문화성, 교육성	문화성, 교육성,
Glenn(1976)	접근성	접근성, 쾌적성,
Haahti(1986)	접근성, 문화체험	향토성, 환대성,
Yau & Chan(1990)	쾌적성, 환대성, 향토성	흥미성, 친절성,

<표계속>

연구자	요 인	종합(27개)
서태양(1991)	정신건강성, 향토성, 문화성	안전성, 다양성,
김원인(1994)	교육성, 접근성	편리성, 신기성,
신찬혁(1995)	접근성, 교육성, 쾌적성	전통성, 체험성,
이태희(1997)	흥미성, 친절성, 안전성, 다양성, 편리성	종교성, 유용성,
이장주(1997)	신기성,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	상징성, 공간성,
이근(1998)	예술성, 종교성, 유용성, 학문성	진정성, 지속성,
유수현 & 진병렬(2002)	예술성, 공간성,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학문성,
Poria(2003)	문화성, 장소성, 역사성	정신건강성,
이원옥 & 서용은(2003)	예술성, 공간성, 역사성, 상징성, 관광활동성	관광활동성,
이창언(2007)	진정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실현가능성

자료: 안윤지(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요소들 중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총 27가지의 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는 위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요인항목들이 보편화된 역사문화자원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에 제시된 모든 요인들을 종합하여 각 성향별 공통된 항목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일반화된 역사문화자원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일 관광지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역사문화자원이 관광자들에게 보다 더 호의적이고 특성 있는 매력성들을 부각시켜 나아가도록 역사문화자원의 대표적인 매력요소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거한 문화재 지정 기준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경관성과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기준인 예술적, 미적, 희귀성,

독특성, 상징성, 역사성을 토대로 27가지 요소를 역사성(지속성, 자긍심), 진정성(고유성, 독특성, 문화성, 상징성, 신기성, 전통성, 향토성, 희귀성), 학문성(교육성, 학술성), 심미성(예술성, 경관성), 공간성(접근성, 편리성, 장소성), 유용성(실현가능성, 관광활동성, 재현 및 복원)등 6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12] 역사문화자원 매력요인

연구자	역사성	고유성	학문성	심미성	공간성	유용성
Harris(1972)	○			○		
Carlson(1976)	○	○	○			
Glenn(1976)					○	
Haahti(1986)					○	
Yau & Chan(1990)		○				○
서태양(1991)		○				
김원인(1994)			○		○	
신찬혁(1995)			○		○	○
이태희(1997)					○	○
이장주(1997)		○	○			○
이근(1998)		○	○	○		○
유수현 & 진병렬(2002)	○	○		○	○	
Poria(2003)	○	○			○	
이원옥 & 서용은(2003)	○			○	○	○
이창언(2007)		○				○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이러한 특성은 역사문화자원의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거나 또한 지역이나 대상의 성격에 따라 부가적으로 추가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성

역사적 선택속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은 역사적 의의라는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선택과정에 의한 결과물으로써 다수의 인과 연쇄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들을, 합리적 설명과 해석의 원형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Carr, 1961). 즉 관광객들이 역사문화자원에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동반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역사성이라 할 수 있겠다.

(2) 진정성

유구한 역사에 기초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유형의 연결체로서 인위적, 시대적 고유성을 가지며 국가적인 고유한 상징물을 심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한편 Cohen(1988)은 진정성의 개념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 기술하여 문화적인 생산이나 불확실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일반적인 고유성이라고 하였다. 즉, 역사유적 및 자연유산 등 전통적인 형태와 시대적 불거리를 겸비한 역사문화자원에, 그 민족 고유의 예술적 성격과 지역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물들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과 의미를 찾음으로써 문화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

는 데 있다.

(3) 학문성

여행은 인간의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졌으며, 역사, 사회, 문화, 인류학, 언어 등은 특정한 목적지에서 얻는 학문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Hachette, 1994). 특히, 역사문화관광은 그 지역의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서 역사문화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학문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기회의 확산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관광객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문화유산과 인공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해설과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심미성

문화유산과 인공유산의 개념을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은 그 대상 자체의 예술성과 각각의 유적 유물에 따른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표출되는 것으로서, 미학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논리적으로 표현한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심미성이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대상의 예술성과 주변과의 조화로움에 대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모든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5) 공간성

관광객이 문화관광을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은 타 관광지가 가지지 못한 볼거리 및 진기한 경험을 그 장소에 와서 제공받고자 하는데 있다. 이

때 그 자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접근하기에 용이한가에 따라 그 대상을 연상하거나 차별화 하게 된다.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특이성과 다른 장소와의 동질성을 가지기도 하는 장소성 즉,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의미의 장소를 공간성이라 할 수 있다.

(6) 유용성

유용성(availability)이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치와 그 대상의 가능성 및 효용성이고, 역사문화관광 활동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보다 역사물들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과 의미를 찾기 위한 재현 및 복원적 측면에서 문화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경험에 대한 고유한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관광객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특징적인 사회의 성격과 모습을 경험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 소비자 행동모델에서 선택속성을 도출하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요인을 토대로 관광행동과 선택속성을 인지하여 요인을 도출하고자 위와 같이 6가지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관광의 한 대상으로 접근하여 관광객이 역사문화자원을 선택하기 위한 속성구성에 있어 자원자체의 매력뿐만 아니라 관광의 행동적 요인에서 보다 쉽게 관광자원에 접근하고, 관광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 방문에 있어서 편의적인 측면과 역사문화자원 매력요인을 역사적 가치 부분과 자원자체의 매력으로 나타내었다. 물론 도출된 6가지의 요인들을 다시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는 것은 요인들의 독자성을 도외시하는 것일 수 있으나 역사문화자원이라는 대상의 특수성과 연구되어지는

사례대상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광의 편의적인 부분은 두 가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분과 접근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이라는 특성 자원 즉, 가치적 측면과 지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자원에서는 소비되는 비용적인 부분이 별도의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항목을 제외하여 도출 하였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요인 중 역사성과 학문성을 역사적 가치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역사성이라는 개념과 학문성이라는 개념을 동일시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역사성이 내재되어있는 관광자원 즉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여 보고, 느끼고, 익히는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내었다.

셋째, 매력요인 중 위의 역사성과 학문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인 고유성과 심미성 그리고 공간성과 유용성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 자체의 매력요인을 하나의 선택속성으로 도출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은 앞서 역사성을 포함한 문화자원이라고 명명한 것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문화자원의 매력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속성의 측정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면 [표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3]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

선택속성		세부선택요인
편의성	시설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 편의시설(벤치 및 휴게시설)
	연계	▪ 주변의 볼거리와 연계(편의적 연결성) ▪ 교통접근의 용이성 및 편의성
역사적 가치		▪ 신라시대 김씨 왕의 계보를 알 수 있어서(조상의 뿌리) ▪ 신라시대 유적 유물의 뛰어난 세공 및 축조기술을 보기위해 ▪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이며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사적지이기 때문에 ▪ 4~6C 약150년 사이에만 나타난 독특한 묘제문화를 보기 위해서(금-부활의 상징, 금관 및 부장품, 순장풍습)
자원매력성		▪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특이성-고분공원의 공원화) ▪ 역사문화자원의 공간성(주변 자연환경과 조형물의 조화) ▪ 역사문화자원의 심미성(유적의 예술성) ▪ 역사문화자원의 유용성(재현 및 복원; 전시시설, 보존 및 보호)

자료 : 연구자 정리

4.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객 만족

만족이란 기대와 실제경험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Oliver, 1981). 또한 만족은 관광자가 관광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며(Bowen & Clake, 2002), 관광활동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이귀옥, 2001).

이러한 만족은 관광체험의 후속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으로(고동우, 1998), 관광자가 관광지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관광자가 지각한 경험과의 상호작용이며(pizam, 1979) 관광 이전의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라고 논의되어 지고 있다(Raaij & Francken, 1984).

또한 Howard Sheth에 의하면 만족은 소비자의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구매한 후 소비경험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고(이은미, 2004; 재인용), Baker와 Crimpton는 관광객의 사회 심리적 상태와 관광지의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광경험 후의 관광객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다(Baker & Crimpton, 2000).

반면, 만족을 정의함에 있어 사용과 소비의 다양한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 호의성이라고 해석한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견해와(Hunt, 1977) 만족과 불만족은 좋고 싫은 느낌이라는 감정적(affective) 측면으로 본 견해가 있다(Westbrook, 1980).

게다가 관광자 경험과 관광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 지향적(outcome) 정의와(Pizam, 1979) 평가과정에 초점을 둔 사용 후 느낌과 성과사이의 지각된 불일치적 평가로 규정하고 있는 과정 지향적(process) 정의가 있다(Franken,

1984).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관광자의 만족은 관광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비교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광자 만족은 제품의 만족과는 달리 관광자의 개인의 경험, 태도, 교육수준 및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 만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맞는 명확한 정의 및 만족측정척도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 만족을 구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 사용되어진 고객 만족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을 기초로 연구별 측정항목과 평가방식을 통하여 관광객 만족의 세부요인을 도출하여 보겠다.

우선 선행연구들에 사용되어진 고객 만족이론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표 14]와 같다.

[표 14] 만족이론

만족이론	설 명
가치이론 (value theory)	관광객 방문전 기대에 만족 성과 및 실현가능성과 같은 예측으로 확률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이론
기대불일치론 (expectation disconfirmation model)	관광객의 방문이전의 기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불일치를 가져와 만족과 불만족을 초래한다는 이론
성과이론 (perceived performance model)	관광에 대한 처음에 기대와는 상관없이 인지된 자체의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공정성이론 (equity model)	개인행동의 동기 자극요인들이 산출과 투입의 상대적 비율이나 상대적 관계에서 동기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이론(형평성 의존)

<표계속>

만족이론	설 명
귀인이론 (attribution model)	인과관계 추론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하는 이론으로 원인과 효과를 검증하는 접근과 원인의 귀인에 따른 반응으로 분석하는 접근이론
규범이론 (norm in model of consumer satisfaction)	관광객의 만족 판단은 규범에 대한 관광대상의 상대적인 범위 일치 불일치에 기초한다는 이론
감정이론 (affective model)	관광객의 감정반응이 만족에 대한 판단과 불평 및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기초로 다양한 상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만족과 불만족의 요인을 규명하여 대처하고자 하였다(Pizam, Neumann & Reichel, 1979). 그 중 Noe(1987)는 관광만족을 물리·사회·문화적 특성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상황 및 대상자체의 심리상태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휴식·교통·상업적 서비스 및 안전시설과 신념, 무형적 상품 및 흥미와 성취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Beard & Raghd(1987)는 관광자의 만족을 관광활동과 관광선택에 참여한 결과로, 개인적으로 형성된 인식이나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광지 만족도의 측정은 관광지 이용결정에 대한 만족여부, 관광지에 대한 여행객 자신의 감정, 지각정도와 타 지역에 대한 비교로 측정되기로 하며, 측정변수로 물리적 환경욕구·휴양욕구·지식욕구·행동욕구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김덕경 외, 2004).

또한 만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Moscardo & Pearce(1986)는 ‘가까운 기간 내 재방문의도’, ‘가까운 사람에게 추천의도’, ‘여행이 즐거웠던 정도’ 등의 변수를 만족의 하위요소로 측정하여 평균한 점수로 만족도를 산출하였

다(박석희, 2002).

결국, 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관광객 만족에서 ‘만족’이 가지고 있는 함축성만큼이나 다양한 개념과 요인들로 인하여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별 만족측정요인을 정리하여 다음[표 15]와 같이 나타내고, 이러한 측정요인의 평가방식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15] 선행연구 만족측정요인

연구자	측정요인
Gunn(1979)	관광자, 매력물, 서비스와 시설, 교통, 정보
Moscado&Pearce (1986)	가까운 기간 내 재방문의도, 가까운 사람에게 추천의도, 여행이 즐거웠던 정도
Noe(1987)	관광지의 물리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 휴식, 교통, 상업적 서비스 및 안전시설과 신념, 활동과 관련된 상황, 무형적 상품, 흥미와 성취감 같은 심리상태
Beard&Raghd (1987)	물리적 환경욕구, 휴양욕구, 지식욕구, 행동욕구
Cronin&Taylor (1992)	서비스의 품질, 가격, 접근성, 이용성
박창규, 엄서호 (1998)	서비스 만족, 비용의 만족(가격, 접근성, 이용성)
권정택(2000)	행사내용, 행사안내, 쾌적성, 참여용이성
고동우(2001)	다양성, 다양성기회, 독특성평가, 동료친밀감, 문화유적, 물가판단, 배려감, 부정적 교류, 불편함, 실속, 여행, 자기확인, 자연교류, 자연환경판단, 지식획득, 지역문화교류
이혜연(2001)	친숙도, 이미지, 선호도
김태희(2003)	만족, 재방문, 권유의도
고호석(2005)	이용의 편리성, 새로운 문화교류, 오락 및 편의시설, 일상생활탈피, 자연경관과 향토음식, 전통문화습득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앞서 언급되어진 선행연구들처럼 만족요소는 매우 다종다양(多種多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측정요소를 평가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방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특성이나 주제의 특징에 따른 세부적인 요인을 접목하여 나타난 다차원 평가방식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단일 차원에서의 만족측정요인으로 사용했던 서비스, 비용, 시간 등의 전반적 개념을 효용 차원적 측정변수로 보고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요인을 결합하여 만족을 도출하여 고객만족 구성요인을 척도로 사용한 박명호, 조형지(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Beard와 Ragheb이 개발한 것으로서 Leisure 개념을 접목하여 감정적 성과와 쾌락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심리적 성과에 대한 만족의 구성영역으로 한정된 여가만족 구성 척도를 들 수 있다(Beard & Ragheb,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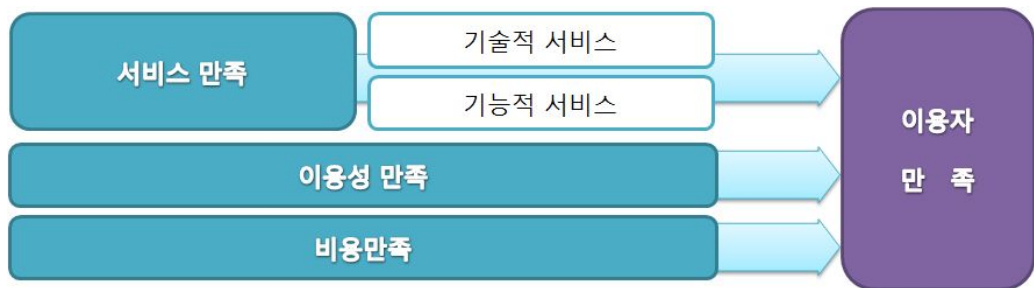
둘째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평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족의 함축적인 특징 때문에 다차원 평가방식과 같은 측정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Beard & Ragheb, 1980; Williams, 1980; Manfredo, 1984), 최근에는 다항목 척도가 아닌 단일 항목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Bloemer & Ruyter, 1980; Bolton & Lemon, 1999; Bieng et al, 2001). 즉, ‘전혀 불만족하다’에서 ‘매우 만족하다’까지 배열된 단일 항목 척도가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Baker & Crompton, 2000; 박석희, 2000).

따라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관광객 만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단일 차원적인 평가방식보다는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더욱 세분화된 다차원적 평가방

식이 본 연구에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이는 연구의 대상이 역사문화자원일 경우 관광의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문화적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얻게 되는 지적인 만족과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만족을 향유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에 기인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방문에서 얻게 되는 양질의 서비스 및 자원 자체의 매력적인 요인과 역사와 전통을 익히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역사문화자원의 구성요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에 대한 측정을 서비스, 이용성, 비용에 대한 관광객 만족과 관광객 자신의 만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 측정은 여러 가지 개념의 측정치의 합으로 지수화 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오정학·김유일, 2001) 관광자 만족도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그림 4]와 같다.



[그림 4] 관광자 만족도

자료 : 엄서호(1994), p28, 안윤지(2003) 문화관광자원의 매력속성과 자원해설이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p41 재인용

이에 따라 관광지의 속성들을 고려하여 볼 때 관광자들의 총체적인 만족은 위에 제시된 모형과 같이 서비스, 비용, 이용성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다음[표 16]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표 16] 만족 선행연구 종합적인 평가

연구자	측정요인							
	서비스			비용	이용성			
	해설 및 안내 체계	분위기 쾌적성	시설	입장료 이용료 식음료 및 상품가	접근성	안정성	수용 능력 (혼잡도, 대기시간)	자원 속성
Gunn(1979)	○		○		○			○
Noe(1987)		○			○	○	○	○
Beard&Raghd (1987)	○	○						
Cronin&Taylor (1992)	○			○	○		○	
박창규, 엄서호 (1998)			○	○	○	○	○	
권정택(2000)	○				○	○		○
고동우(2001)	○		○	○			○	○
이혜연(2001)		○						○
고호석(2005)			○		○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위에 제시된 기준을 통해 서비스만족(주민환대, 편의시설, 안내체계 등), 이용성만족(주변자원과의 연계성, 교통접근성, 소요시간 등), 비용만족(입장료, 이용비용 등)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고, 총체적인 만족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총 만족과 재방문, 권유의사에 관한 것은 일관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총만족에 관한 항목만 제시하여 관광객 만족에 대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17] 역사문화자원 만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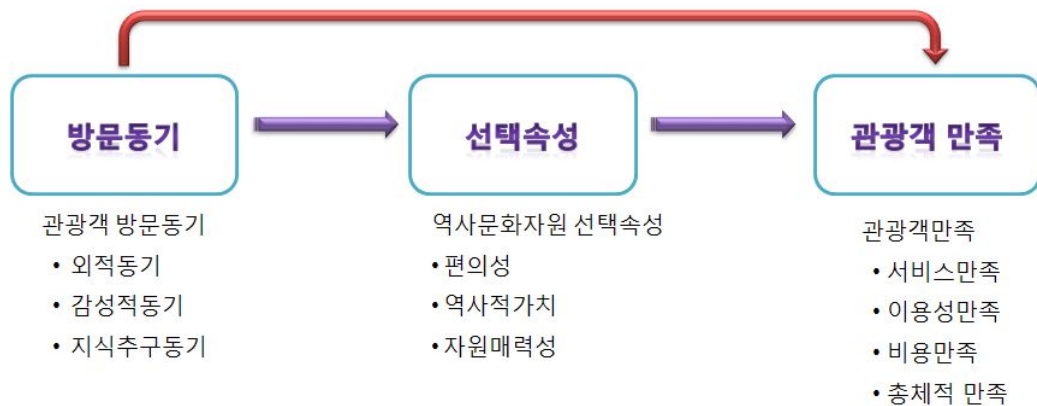
만족척도	만족세부요인
서비스 만족	▪ 역사문화자원 관리자의 친절(방문객을 응대하는 태도) ▪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 ▪ 전시시설(고분 전시실 쾌적성) ▪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재 해설사 ▪ 역사문화자원 안내지도(안내지도 및 홍보물)
이용성 만족	▪ 주변 볼거리와의 연계성(주변자원) ▪ 편의시설의 배치성(내부 휴게시설 포함) ▪ 공원 관리적 측면 ▪ 접근의 용이성 및 편의성(도로망, 이정표, 소요시간)
비용만족	▪ 역사문화자원 입장료 ▪ 각종 식·음료 이용비용(편의점 및 음료자판기 등) ▪ 소요비용(기념품비 및 주차이용비 등)
총체적 만족	▪ 전반적 만족(역사문화자원 방문 후 전반적인 만족)

자료 : 연구자 정리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국내 관광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문헌연구를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5] 연구모형

위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기를 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Poria의 2006년도 논문을 기초로 외적동기, 감성적 동기, 지식 추구동기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방문한 관광자가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요인을 통해 목적지를 선택하고 자 하는 속성을 구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한 매력요인 27개 항목 중 6개 요인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고 6개 요인을 두 가지 범주인 역사적 가치와 자원 매력

성으로 분류하여 관광자가 대상지를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편의적 측면까지 함께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요인들이 관광객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족을 서비스 만족, 이용성 만족, 비용만족으로 나누고 이러한 만족들의 총체적인 만족여부를 구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모형은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형이다.

2. 변수의 조작적정의

연구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현상에서 측정이나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것을 변수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며,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와 연구자가 어떻게 실험변수를 조작할 것인가를 규명해주는 실험적 조작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채서일,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과 변수에 경험적 실증성이 있는지 여부와 연구에 있어 그러한 변수들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

방문동기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기대되는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욕구를 말하며(Beeli 외, 2004),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행동에 참여하거나 하려는 선천적인 사회심리적 힘으로 정의한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는 역사성이 내재된 문화적 자원을 방문하는데 있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인지과정이자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를 Poria(2006)가 제시한 유산 관광동기 속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자 한다.

- ① 감성적 동기 : 관광객의 심리적인 부분의 동기로서 대상지 방문을 통한 역사적 감흥이나 문헌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유산자원에 대한 몰입 정도 및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느끼는 방문동기
- ② 외적 동기 : 일반적인 동기요인으로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혹은 주변의 볼거리나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갖게 되는 동기
- ③ 지식추구 동기 : 지식습득에 관한 동기로서 자녀교육 일환으로 방문하거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추구 및 새로운 문화 이해하고 역사적 배경을 습득하기 위한 방문동기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인 동기요인 항목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이라는 대상에 국한시킨 방문동기이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2)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

속성이란 일반적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칭하며, 선택속성이란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물리, 사회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소국섭, 2005).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은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요인을 가지고 관광객이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로서 역사성을 가진 문화자원 자체의 매력요인 및 역사적 가치 등이 구성요소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객관적인 관광지속성에 대한 관광객 태도와 관광지가 수반하는 포괄적인 이미

지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선택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편의성 : 시설적 측면에서의 관광정보와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과 연계적 측면에서의 주변 자원 연계성 및 대상지 방문의 접근용이성
- ② 역사적 가치 : 자원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선택동기로 대상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보와 유적유물의 세공 및 축조기술, 유네스코 지정 지구 및 사적지적 가치 및 독특한 묘제문화
- ③ 자원매력성 : 자원 자체의 매력요소로서 고분공원으로서의 진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공간성 및 자원 자체의 예술성과 재현 및 복원으로 자원화 된 유용성

이들 정의에 대한 각 항목별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객 만족

관광객 만족은 관광활동과 관광선택에 참여한 성과로 개인적으로 형성된 인식이나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Beard 외 1987), 개인의 경험, 관광에 대한 태도, 교육수준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만족을 역사문화자원이라는 특정관광지 방문 경험에 대한 관광자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위해 서비스와 이용성 그리고 이를 위해 관광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① 서비스 만족 : 관리자의 친절여부와 내부 휴게 및 편의시설 불편사항이나 문화재 해설사의 서비스, 안내지도 및 홍보물에 대한 해설에 관한 만족

② 이용성 만족 : 주변 자원과의 연계적 이용성 및 접근 용이성과 편의성, 공원 관리적 부분과 전시시설대한 쾌적 정도 및 내부 관람시간에 대한 만족

③ 비용 만족 : 방문하는데 있어 발생되어지는 입장료, 식음료비용, 기념품 비용, 주차이용비용에 대한 만족

이들 정의에 대한 각 항목별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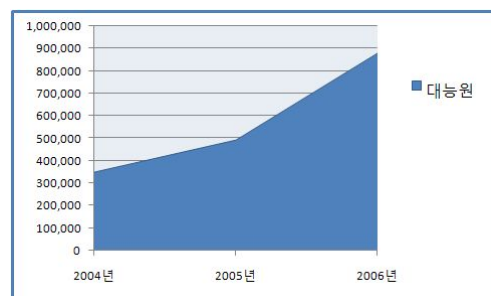
3. 조사설계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조사사례대상지는 경주시 도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능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능원은 경주의 수많은 역사문화자원 중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에 속한 지역으로써 신라 왕족의 고분 분포 지역으로 미추왕릉과 천마총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6] 대능원 방문객 추이

둘째, 대능원은 경주시 유료 입장시설 중 국립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 역사

문화자원 중 불국사와 석굴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며, 2004년 이후 다시금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장소이다.

[표 18] 경주시 유료관광시설 입장객수

구분	분황사	석굴암	신라무열왕릉	기림사	경주첨성대	통일전	신라오릉
계	672,383	3,729,470	319,107	358,107	1,190,595	204,543	178,430
구분	경주임해전지/안압지		불국사	계림	김유신장군묘	대릉원	포석정
계	1,561,523		5,440,058	139,937	388,014	2,094,033	607,600

* 관광지방방문객보고통계에등록된관광지의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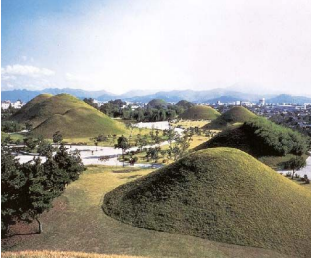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4.07 ~ 2007.06)

셋째, 대능원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4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고분공원 조성계획이 진행 중이며, 중요도와 실현가능성도 가장 높게 평가되어 문화유산보전 정비 사업에 중요한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능원을 역사문화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사전 방문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9] 대능원 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문화재 지정여부	2000년 11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규 모	고분 23기, 면적 414,547.32m ²
입 장 료	유료) 성인1인 기준 1500원
시대구분	신라시대(4C~6C)

특 징	돌문지덧널무덤 (적석목곽분) 대표적 무덤양식, '천마도'말다래가 출토, 금관 발굴
관련인물 및 유적	미추왕릉, 황남대총, 천마총
	대능원은 제13대 임금으로 김씨로는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왕의 능이 있는 곳으로, 삼국유사 왕력편에 미추왕의 능 이름을 '대릉(大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서 유래가 되었다. 그 후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당시 고분 밀집 지역의 마을을 철거하고, 지금의 무덤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내부를 복원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삼고자 155호분을 발굴한 것이 천마총이 되었고, 모두 11만 여점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 후 고분 내부를 전시실로 만들어 내부를 공개하고 발굴 유물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이 현 대능원의 모습이다.

자료 : 문헌자료를 통해 연구자 정리

②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 될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 분석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방문동기, 선택속성 및 관광객 만족 측정 시 고려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각 12개, 15개, 16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고 향후 관리적 측면에 대한 질문 3개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10개로 추가 구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예비 설문지 총 56개의 질문 문항을 가지고 대능원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응답자에게 보다 명확한 설명문항인지 여부와 구성 오류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우기인 관계로 2007년 9월 5일~6일에 걸쳐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대능원 지역 주민 및 방문 관광객과 경주대학교 관광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3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항목의 설명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설문지를 위해 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응답자의 지각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항을 제거하거나 어구수정을 거친 후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총 51개의 문항으로 방문동기와 관련하여 11개 문항,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13개 문항, 만족과 관련하여 14개의 문항,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개의 문항과 향후 관리적 측면의 3개 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10개의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향후 관리적 측면의 질문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그리고 “그저그렇다”를 3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0]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요인명	문항수	설문지번호	계
방문동기	외적동기	4문항	I - 1,2,3,4	11
	감성적동기	3문항	I - 5,6,7	
	지식추구동기	4문항	I - 8,9,10,11	
선택속성	편의성	4문항	II - 1,2,3,4	13
	역사적 가치	4문항	II - 5,6,7,8	
	자원 매력성	5문항	II - 9,10,11,12,13	
만 족	서비스 만족	4문항	III - 1,2,3,4	14
	이용성 만족	5문항	III - 5,6,7,8,9	
	비용 만족	4문항	III - 10,11,12,13	
전반적만족	총 만족	1문항	III - 14	
향후 방안	필요기능	1문항	IV - 1	3
	해설기능	1문항	IV - 2	
	관리방안	1문항	IV - 3	
인구통계적특성		10문항	V, VI, VII, VIII	10

3) 조사방법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 기간은 방문빈도가 높은 주말을 이용하여 2007년 9월 8일과 9일 양일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주 대릉원 내 a, b, c 세 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조사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설문조사 경험이 풍부한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재학생 4명과 총 5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전 교육(설문지 설명 및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교육)을 통해 설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습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자에게는 자기 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설문문항에 대한 설명을 선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7] 조사대상지점

이를 통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성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5부 제외한 유효표본 325부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4.0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분포비율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측정항목들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방문동기 및 속성과 만족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몇 가지 동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기법 중 하나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모델로서는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교회전방법(orthogonal rotation)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independence)과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 그리고 상관관계(correlation)에 관한 비교를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고, F검정으로 회귀분석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화계수값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각 요인별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IV.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1. 조사 표본의 기술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최종유효표본인 325명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성을 보면 남성이 139명(42.8%), 여성이 186명(57.2%)로 나타나 성별구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51명(46.5%)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고, 20대가 90명(27.7%), 40대가 67명(20.6%), 10대가 9명(2.8%), 50대가 8명(2.5%)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40대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역사문화자원 방문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168명(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대학교 졸업이 95명(29.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5명(10.8%)이며, 대학원 졸업이 18명(5.5%), 중학교 졸업 이하가 9명(2.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사문화관광의 주된 관광자들은 고학력 수준의 고급문화관광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질적인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향후 자원에 대한 관리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활성화 요소를 부여하여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78명(24.0%), 주부가 68명(20.9%), 전문직이 55명(16.9%), 학생이 54명(16.6%), 자영업이 30명(9.2%), 공무원이 27명(8.3%) 기타가 13명(4.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 동반형태는 가족 및 친지가 168명(51.4%)로 가장 높았고 친구 및 연인이 110명(34.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친목단체/동호인모임 19명(5.8%), 학교 및 직장동료는 15명(4.6%), 여행사 단체관광(2.8%) 기타가 1명(0.3%)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소득수준은 200만원 대가 86명(26.5%)의 분포를 이루고 100만원 대가 77명(23.7%), 100만원 미만이 59명(18.2%), 300만원 대가 49명(15.1%), 500만원 이상이 28명(8.6%), 400만원 대가 26명(8.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조사 ‘품목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가계수지(도시)’자료에 따르면 2007년 2/4분기 전 가구 평균소득은 3,166,768원이고, 사무직 가구 소득은 4,251,905원으로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월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해보면 역사문화자원 방문 대상 가구의 소득은 평균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마도 설문응답에 있어 현재 가구 월 소득 수준을 개인의 소득수준으로 오인하거나 설문 시 가구의 월 소득 수준에 대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낮추어 제시한 것에 따라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대상지에서 1인당 지출된 비용은 5천원 미만이 133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이 94명(28.9%),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이 58명(17.8%),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이 24명(7.4%), 5만원 이상이 16명(4.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관광공사의 월간관광시장동향(통계자료) 2006년 인트라바운드 자료를 참고로 당일여행 1인 1일 평균 38,384원과 비교하면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지출한 경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능원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소요된 비용지출에 대한 질문

응답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1일 평균지출비율로 환산하면 하루 소비지출의 12,055원(31.4%)정도로 나타나 여느 관광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용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지가 역사문화자원 3대 유료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지출이 여느 관광지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상 자원 내에 있어 비용지출을 이끌어낼 매력요소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관광객 이용에 있어 비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상품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다.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196명(60.3%)이며, 시내버스(14.8%), 전세버스(12.9%), 기차가 25명(7.7%) 자전거가 13명(4.0%), 오토바이가 1명(0.3%)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6년 국민여행실태 조사 시 국내여행 교통수단 이용에 자가용과 버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허나 기차의 비율이 높은 것은 택시나 도보로 방문한 경우이며, 설문조사 시 응답자에게 질문을 하여 얻어낸 결과치이다.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경기 51명(15.7%), 부산 42명(12.9%), 경북 42명(12.9%)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 38명(11.7%), 대구 34명(10.5%), 경남 28명(8.6%), 서울 23명(7.1%) 대전과 충남이 각각 19명(5.8%), 전남 13명(4.0%), 강원 6명(1.8%), 인천 5명(1.5%), 광주 3명(0.9%), 전북과 제주가 1명(0.3%)으로 조사되었다.

방문횟수로는 2~3회 방문이 171명(52.6%)으로 나타났고 처음 방문이 82명(25.2%), 4~6회가 46명(14.2%), 6~10회가 17명(5.2%), 10회 이상이 9명(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대능원 방문에는 재방문율이 높게 나타남을 추론할 수 있겠다.

[표 2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빈도 (명)	비율 (%)	변수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39	42.8	월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9	18.2
	여성	186	57.2		100~200만원	77	23.7
동반인	가족 및 친지	168	51.4		200~300만원	86	26.5
	친구 및 연인	110	34.2		300~400만원	49	15.1
	친목단체/동호인모임	19	5.8		400~500만원	26	8.0
	학교 및 직장동료	15	4.6		500만원 이상	28	8.6
	여행사 단체관광	9	2.8	인당지출비	5천원 미만	133	40.9
	혼자서	3	0.9		5천원~1만원미만	94	28.9
	기타	1	0.3		1만원~3만원미만	58	17.8
교통 수단	전세버스	42	12.9		3만원~5만원미만	24	7.4
	시내버스	48	14.8		5만원 이상	16	4.9
	자가용	196	60.3	거주지	경북	42	12.9
	오토바이	1	0.3		경남	28	8.6
	자전거	13	4.0		대구	34	10.5
	기타	25	7.7		울산	38	11.7
연령	10대	9	2.8		부산	42	12.9
	20대	90	27.7		서울	23	7.1
	30대	151	46.5		인천	5	1.5
	40대	67	20.6		경기	51	15.7
	50대	8	2.5		대전	19	5.8
학력	~중졸	9	2.8		충남	19	5.8
	고졸이하	35	10.8		강원	6	1.8
	전문대졸	95	29.2		광주	3	0.9
	대졸	168	51.7		전북	1	0.3
	대학원졸	18	5.5		전남	13	4.0
직업	학생	54	16.6	방문횟수	제주	1	0.3
	주부	68	20.9		처음	82	25.2
	전문직	55	16.9		2~3회	171	52.6
	자영업	30	9.2		4~5회	46	14.2
	회사원	78	24.0		6~10회	17	5.2
	공무원	27	8.3		10회 이상	9	2.8
	기타	13	4.0				

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시 측정하였을 경우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때 이 결과는 믿을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신뢰도(reliability)라 하며, 이와 같은 일관성을 검증하는 통계기법을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이라 한다(정충영 외, 2004).

신뢰도 분석의 Cronbach's α 계수는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즉 내적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는 상관계수로 해석되므로,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22] 방문동기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요인명	측정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지식추구동기	▪ 역사적 배경을 배우기 위해서 ▪ 새로운 문화를 알고 싶어서 ▪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 지식추구를 위해서	4문항	.778
감성적동기	▪ 유산자원에 일체감(몰입) 느끼기 위해 ▪ 후세에 전승되어야한 유산이라 생각이 되어서 ▪ 역사적 감흥을 느끼기 위해	3문항	.807
외적동기	▪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 일상탈출을 위해서 ▪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해서	3문항	.726

본 자료의 분석결과 방문동기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표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식추구 동기’, ‘감성적 동기’, ‘외적 동기’ 모두 α 의 계수는 0.70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선택속성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요인명	측정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역사적 가치	- 경주역사유적지구 이자 사적지 - 신라시대 세공 및 축조기술 - 신라시대 김씨 왕의 계보 - 독특한 묘제문화	4문항	.798
편의성	- 편의시설(벤치 및 휴게시설)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 주변의 볼거리와 연계 - 교통접근의 용이성 및 편의성	4문항	.818
자원매력성	- 주변자연환경과의 조화 - 고분군집의 공원화 - 유적의 예술성 - 천마총의 재현 및 복원	4문항	.794

또한 선택속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도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가치’, ‘편의성’, ‘자원매력성’ 모두 α 의 계수는 0.70이상으로 나타나, 관광객 선택속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자료의 만족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표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만족’, ‘이용성 만족’, ‘비용 만족’ 모두 α 의 계수는 0.70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24] 관광객만족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요인명	측정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서비스 만족	▪ 문화유산해설사의 서비스 ▪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이용에 불편여부 ▪ 전시시설의 쾌적성 ▪ 관리자(직원)의 방문객을 응대태도 ▪ 안내지도 및 홍보물의 해설	4문항	.832
이용성 만족	▪ 주변 볼거리와의 연계성 ▪ 공원관리 ▪ 접근 용이성 및 접근성 ▪ 전시시설의 관람시간	4문항	.854
비용만족	▪ 방문 식음료비 ▪ 방문 기념품비 ▪ 방문 입장료 ▪ 주차이용료	4문항	.796

(2)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타내는 것이며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평가 하는 것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관측된 변수들이 하나의 특성으로 요인이 묶여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통해 다른 특성을 가진 요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으로 그 특성의 측정도구가 타당한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이 타당성 검증 외에 변수들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변수 제거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며 여러 개의 변수들이 관련 특성에 따라 묶이게 되므로 요인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

함되더라도 중요도 인식이 낮은 변수를 찾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변수가 제거된다. 그리고 그 묶여진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변수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실시하여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여 각 요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의 수는 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나타내주는 고유치(eigen value)의 값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표 25] 방문동기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변수	지식추구 동 기	감성적 동 기	외 적 동 기	공통치	항목-전 체상관성	Cronbac h's a
역사적 배경	.830			.756	.697	.778
새로운 문화	.744			.677	.598	
자녀 교육의 일환	.692			.519	.484	
지식추구	.682			.657	.641	
유산자원에 일체감(몰입)		.873		.819	.716	.807
후세에 전승유산		.750		.705	.647	
역사적 감흥		.706		.631	.606	
경관을 감상			.835	.701	.610	.726
일상탈출			.820	.697	.523	
주변에 볼거리의 풍부			.738	.639	.520	
Eigen Value	4.083	1.906	1.011			
분산(%)	40.834	19.064	10.113			
누적 분산(%)	40.834	59.898	70.011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5]와 같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최종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의 설명력은 70.0%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공통치는 0.4이상으로써 추출된 요인에 의해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추출된 이들 요인을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관련하여 3가지 지식추구동기, 감성적 동기, 외적동기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고유값(eigen value)으로 볼 때 ‘지식추구 동기’, ‘감성적 동기’, ‘외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보면 ‘지식추구 동기’요인에서는 ‘역사적 배경’, ‘새로운 문화’, ‘자녀 교육의 일환’, ‘지식추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성적 동기’요인에서는 ‘유산자원에 일체감’, ‘후세에 전승유산’, ‘역사적 감흥’으로 나타났고, ‘외적 동기’는 ‘경관을 감상’, ‘일상탈출’, ‘주변에 볼거리의 풍부’로 나타났다.

[표 26] 선택동기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변수	역사적 가치	편의성	관광 매력성	공동치	항목-전 체상관성	Cronbac h's α
역사유적지구 및 사적지 세공 및 축조기술(신라) 김씨왕의 계보 묘제문화	.805 .770 .699 .697			.671 .682 .558 .590	.647 .660 .536 .596	.798
편의시설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주변의 볼거리와 연계 접근의 용이성 및 편의성		.826 .747 .674 .671		.718 .672 .655 .655	.604 .640 .669 .641	.818
주변자연환경과의 조화 고분군집의 공원화 유적의 예술성 전시시설 재현 및 복원			.765 .759 .584 .570	.647 .678 .605 .605	.557 .598 .628 .633	.794
Eigen Value	5.248	1.534	1.054			
분산(%)	43.731	12.780	8.783			
누적 분산(%)	43.731	56.511	65.294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와 같으

며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최종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의 설명력은 65.3%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공통치는 0.4이상으로써 추출된 요인에 의해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추출된 3가지의 요인은 역사문화자원 방문에 있어 관광객이 제공받을 수 있는 유·무형 매력성을 역사적 가치, 편의성, 자원매력성 순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고유값(Eigen Value)으로 볼때 ‘역사적 가치’, ‘편의성’, ‘관광매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요인에서는 ‘역사유적지구 및 사적지’, ‘세공 및 축조기술’, ‘김씨 왕의 계보’, ‘묘제문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의성’요인에서는 ‘편의시설’,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주변 볼거리와 연계’,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으로 나타났고, ‘관광매력성’은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분군집의 공원화’, ‘유적의 예술성’, ‘전시시설 재현 및 복원’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만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7]과 같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최종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의 설명력은 66.9%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공통치는 0.4이상으로써 추출된 요인에 의해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서비스 만족’에 있어 ‘안내지도 및 홍보물의 해설’설문문항의 경우 공통치 값이 0.396으로 기준인 0.4와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역사문화자원 만족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고 적용하였다.

[표 27] 만족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변수	서비스 만족	이용성 만족	비용 만족	공통치	항목-전 체상관성	Cronbac h's α
문화유산해설사의 서비스	.790			.708	.703	.832
편의시설이용에 불편여부	.729			.638	.635	
전시시설의 쾌적성	.693			.633	.648	
방문객을 응대태도	.655			.639	.676	
안내지도 및 홍보물의 해설	.529			.396	.502	
주변 볼거리와의 연계성		.822		.745	.736	.854
공원관리		.821		.770	.767	
접근 용이성 및 접근성		.752		.650	.656	
전시시설의 관람시간		.626		.620	.629	
방문 식음료비			.880	.795	.705	.796
방문 기념품비			.847	.775	.717	
방문 입장료			.674	.582	.525	
주차이용료			.634	.541	.524	
Eigen Value	5.719	1.884	1.089			
분산(%)	43.993	14.490	8.377			
누적 분산(%)	43.993	58.484	66.860			

요인분석결과 역사문화자원 만족과 관련하여 3가지 서비스 만족, 이용성 만족, 비용만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고유값(Eigen Value)으로 볼 때, ‘서비스 만족’, ‘이용성 만족’, ‘비용 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보면, ‘서비스 만족’요인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의서비스’, ‘편의시설이용에 불편여부’, ‘전시시설의 쾌적성’, ‘방문객을 응대태도’, ‘안내지도 및 홍보물의 해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성 만족’요인에서는 ‘주변 볼거리와의 연계성’, ‘공원관리’, ‘접근 용이성 및 접근

성’, ‘전시시설의 관람시간’으로 나타났고, ‘비용만족’은 ‘방문 식음료비’, ‘방문 기념품비’, ‘방문 입장료’, ‘주차이용료’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 선택속성, 만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8] 각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요인명	지식추구 동 기	감성적 동 기	외 적 동 기	역사적 가 치	편의성	자 원 매력성	서비스 만 족	이용성 만 족	비용 만족
지식추구동기	1.000								
감성적동기	0.000	1.000							
외적동기	0.000	0.000	1.000						
역사적 가치	0.482**	0.341**	0.037	1.000					
편의성	0.099	0.156**	0.247**	0.000	1.000				
자원매력성	0.151**	0.226**	0.303**	0.000	0.000	1.000			
서비스만족	0.266**	0.267**	0.179**	0.284**	0.306**	0.190**	1.000		
이용성만족	0.267**	0.252**	0.308**	0.191**	0.145**	0.499**	0.000	1.000	
비용만족	0.046	0.156**	0.134*	0.123*	0.224**	0.117*	0.000	0.000	1.000

단, *P<0.05, **P<0.01 수준에서 Pearson 상관계수가 유의함

3. 측정변수간의 관계

1) 방문동기와 선택속성간의 관계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가 선택속성 중 역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표 29]와 같다.

여기서 역사적 가치란 조상의 뿌리를 알고 거기서 나타나는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는 기술적 가치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및 사회적인 문화재의 중요여부에 따른 법제적 가치를 모두 칭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 속성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자연감상을 하기위해 방문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동기인 ‘외적동기’ 보다는, 지적인 앎에 대한 추구인 ‘지식추구동기’와 개인의 특질과 관련된 ‘감성적동기’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식추구동기’는 자녀 교육의 증대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요구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추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역사적 사실이나 유적에 대해 느끼는 감흥 및 책을 읽고 몰입하는 정도와 후세에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감성과 관련된 ‘감성적동기’보다는 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역사적 가치추구에 있어 역사문화관광이 역사성을 가진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권을 토대로 관광객들이 그 공간을 방문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나 유산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면서 가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듣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는 복합적인 관광활동이기 때문이다.

[표 29] 방문동기와 역사적 가치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역사적 가치	지식추구동기	.482	.045	.482	10.709	.000***
	감성적동기	.341	.045	.341	7.567	.000***
	외적동기	.037	.045	.037	.829	.408
	$R^2=.350$ 상수=1.380 F=57.546 p=.000					

*p<0.1, **p<0.05, ***p<0.01

다음으로 방문동기와 편의적 선택속성 간에는 ‘외적동기’와 ‘감성적동기’가 ‘지식추구동기’요인보다 편의적 속성에 높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함에 있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활동을 기본으로 행하기 때문에 관광에서 주어지는 기반 시설에 대한 편의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인 동기에 가까울수록 높은 영향관계를 보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상탈출이나 자연경관감상 그리고 주변의 볼거리와 연계된 ‘외적동기’와 개인의 감성 중 역사적인 유산에 대한 몰입과 관련된 감정이나 역사적인 감흥과 관련된 ‘감성적동기’일수록 더 높은 영향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고차원적인 동기에 가까울수록 대상지의 관광정보나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관광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방문하거나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자하는 ‘지식추구동기’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방문동기와 편의적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편의성	지식추구동기	.099	.053	.099	1.873	.062*
	감성적동기	.156	.053	.156	2.933	.004***
	외적동기	.247	.053	.247	4.657	.000***
	$R^2=.095$ 상수=7.660 $F=11.267$ $p=.000$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자원매력성과 관련된 선택속성은 [표 31]에서 ‘외적동기’, ‘감성적동기’, ‘지식추구동기’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원매력성은 관광자가 관광을 하며 기본적인 요구에 의해 동기를 가지고 목적지 특성에 따른 대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 대상의 특이성과 관련된 진정성과 유적의 예술성 및 유용성과 같은 중요요인 인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관광을 시도하고자 할 때 관광자는 이미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요인을 고려하여 방문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탈출 및 주변 경관의 감상과 주변의 볼거리를 고려한 ‘외적동기’에 가까울수록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역사문화관광을 하면서 자원에 대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본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을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녀 교육의 일환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추구와 관련된 동기요인 보다 개인의 감성과 관련된 역사적 감흥이나 자원의 몰입정도에 따른 ‘감성적동기’일수록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방문동기와 자원매력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자 원 매 력 성	지식추구동기	.151	.051	.151	2.957	.003***
	감성적동기	.226	.051	.226	4.438	.000***
	외적동기	.303	.051	.303	5.937	.000***
	$R^2=.166$ 상수=-1.059 F=21.231 p=.000					

*p<0.1 ,**p<0.05, ***p<0.01

2) 방문동기와 만족간의 관계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와 만족 중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표 32]와 같다.

여기서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와 서비스 만족 간의 모든 방문동기는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감성적동기’와 ‘지식추구동기’가 ‘외적동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역사적 감흥이나 유산자원에 대한 일체감에 대한 기대와 같은 ‘감성적동기’와 자원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지식추구동기’를 가지고 방문한 관광객일수록 대상에 대한 기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적동기를 가지고 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서비스 만족에 보다 높은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감성이든 지식이든 대상에 대해 느낌이나 정보를 얻고자하는 기대도가 크면 클수록 그렇지 않은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자들의 친절정도나 편의시설 및 전시시설에 대한 시설만족과 문화유산해설사들의 부가적인 설명과 같은 서비스 만족에 보다 긍정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방문동기와 서비스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서비스 만족	지식추구동기	.266	.051	.266	5.254	.000***
	감성적동기	.267	.051	.267	5.266	.000***
	외적동기	.179	.051	.179	3.530	.000***
	$R^2=.174$ 상수=1.468 F=22.598 p=.000					

*p<0.1, **p<0.05, ***p<0.01

다음은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이용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적동기’, ‘감성적동기’, ‘지식추구동기’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용성 만족이란 주변 볼거리와의 연계성 및 이용함에 있어 불편여부에 따른 편의시설의 배치성이나 공원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은 대상 접근의 용이성 및 편의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이용성 만족에 있어 단순한 일상탈출이나 경관감상과 같은 일반적인 동기인 ‘외적동기’가 가장 높은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성에 의존한 자원이용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방문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지식에 대해 앎을 추구하는 동기보다는 일반적인 동기나 감성과 관련된 동기 일수록 이용만족에 더 높은 영향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지식추구나 새로운 문화를 알고 역사를 배우기 위한 ‘지식추구동기’보다 역사적 감흥이나 자원에 대한 일체감 혹은 후세에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감성적동기’가 더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방문동기와 이용성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이용성 만족	지식추구동기	.267	.049	.267	5.455	.000***
	감성적동기	.252	.049	.252	5.138	.000***
	외적동기	.308	.049	.308	6.281	.000***
	$R^2=.229$ 상수=-7.507 F=31.867 p=.000					

*p<0.1, **p<0.05, ***p<0.01

끝으로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비용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적 동기’와 ‘외적동기’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적동기’일수록 대상에 대해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역사적 감흥이나 유산자원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자신의 일부라고 대상을 여기는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지출에 대한 정도의 잣대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탈출이나 경관 감상을 위해 대상을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비용만족에 높은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녀 교육의 일환이나 자원 자체의 지식추구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 것과 관련된 지적동기인 ‘지식추구동기’ 일수록 비용만족에 있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치적 측면에 있어 지식과 같은 무형적인 가치가 비용적인 금전적 부분보다 더 높게 관광객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지식추구동기가 비용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표 34] 방문동기와 비용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비 용 만 족	지식추구동기	.046	.055	.046	.837	.403
	감성적동기	.156	.055	.156	2.867	.004***
	외적동기	.134	.055	.134	2.456	.015**
	$R^2=.174$ 상수=1.468 F=22.598 p=.000					

*p<0.1 , **p<0.05, ***p<0.01

앞서 제시된 서비스 만족과 이용성 만족, 비용 만족에 따른 동기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기요인 항목들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와 이용성 만족에 있어 동기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만족에 있어 제시된 동기항목들이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만족요인 비해 동기요인들이 비용만족에는 낮은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 선택속성과 만족간의 관계

역사문화자원의 선택속성과 만족 중 서비스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표 35]와 같다.

서비스 만족은 자원 관리자의 방문객 응대 태도나 편의시설이나 전시시설에 대한 만족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의 서비스나 안내홍보물에 대한 만족을 일컫는다. 이러한 서비스 만족에 ‘편의성’, ‘역사적 가치’, ‘자원 매력성’순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정보 안내시설이나 휴게시설과 관련된 편의시설 및 주변볼거리

와의 교통접근성에 대한 ‘편의성’이 높은 영향관계를 보인 것은 자원자체의 매력성에 관한 속성을 토대로 대상지를 선택할 경우 동기요인과 마찬가지로 대상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해설부분이나 시설부분의 쾌적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게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조상의 뿌리를 찾거나 혹은 유적·유물에 대한 기술적 가치 및 문화적이며 법으로 지정된 사회화된 법제적 가치를 속성으로 본 ‘역사적 가치’가 자원의 특이성과 관련된 진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유적의 예술성과 자원 활용에 있어 유용성에 관한 ‘자원 매력성’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관광객이 대상에 대한 기대치나 역사를 알고 관광활동을 통해 지적인 앎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경우, 단순히 관광자원 자체의 매력을 선택하여 대상을 정한 경우보다 목적실현에 있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해설이나 안내지도 및 홍보물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에 더 높은 영향관계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표 35] 선택속성과 서비스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서비스 만족	역사적 가치	.284	.050	.284	5.737	.000***
	편의성	.306	.050	.306	6.178	.000***
	자원 매력성	.190	.050	.190	3.826	.000***
	$R^2=.211$ 상수=1.024 $F=28.575$ $p=.000$					

* $p<0.1$,** $p<0.05$, *** $p<0.01$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 선택속성과 이용성 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자원 매력성’이 ‘역사적 가치’와 ‘편의성’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원 매력성’은 관광자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에 관광자원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자원을 이용적이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의 접근이 높기 때문에 자원 자체의 매력을 중요요인으로 선택한 관광자일수록 보다 높은 영향관계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역사적 가치’와 관련된 속성요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방문하기 때문에 단순한 편의적 시설의 제공이나 주변자원과의 연계성과 관련된 ‘편의성’ 속정보다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더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선택속성과 이용성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이용성 만족	역사적 가치	.191	.046	.191	4.103	.000***
	편의성	.145	.046	.145	3.130	.002***
	자원 매력성	.499	.046	.499	10.748	.000***
	$R^2=.307$ 상수=-6.803 $F=47.382$ $p=.000$					

* $p<0.1$, ** $p<0.05$, *** <0.01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 선택속성과 비용 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편의성’이 ‘역사적 가치’와 ‘자원 매력성’보다 비용 만족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만족에 있어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통해 소비하는 비용에 대한 비중을 가치나 매력성에 중요도를 두기보다 ‘편의성’과 같은 관광정보 및 안내

시설이나 편의시설 및 주변볼거리와의 연계성이나 교통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선택속성의 비용 지불의 대가 즉, 편익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문화적이나 사회화된 법제적 가치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자원 자체의 주변자원과의 조화 및 유적의 예술성과 활용에 대한 유용성의 ‘자원 매력성’보다 더 높은 영향관계로 나타난 것은 사례대상지가 도심권 내에 자리 잡은 장소로써 다른 일반 관광시설에 비해 소요되는 저렴한 비용과 자원에 대한 역사적 가치인식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표 37] 선택속성과 비용 만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비 용 만 족	역사적 가치	.123	.054	.123	2.293	.022**
	편의성	.224	.054	.224	4.183	.000***
	자원 매력성	.117	.054	.117	2.191	.029**
	$R^2=.211$ 상수=1.024 $F=28.575$ $p=.000$					

* $p<0.1$, ** $p<0.05$, *** <0.01

역사문화자원 중 대능원을 선택하게 된 속성요인들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만족과 비용만족에는 편의성에 관련된 속성이 그리고 이용성 만족에는 관광자원화된 매력성 부분에 더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며, 이는 역사문화자원 방문에 대한 만족에 있어 편의시설 및 자원에 부여되는 관광자원으로 매력성 및 관리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나타내어준다.

4)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어지던 독립변수들 및 종속변수 간에 인과적 관계가 설정되고, 설정된 인과적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특정화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김두섭, 1994; Bohnstedt 외 1994).

이러한 경로분석은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모형을 설정한 후, 설정된 경로모형에 따라 회귀분석을 여러 번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자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기와 속성 및 만족간의 효과분석을 위해 분석모형을 [그림 5]의 연구모형과 같이 두고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역사문화 자원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다중회귀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식을 함수관계로 표현하였다.

$$S = f(M, A) \quad (1)$$

$$A = f(M) \quad (2)$$

$$dS = f_M \times dM + f_A \times dA \quad (3)$$

$$\frac{dS}{dM} = \frac{dS}{dM} \times \frac{dM}{dM} + \frac{dS}{dA} \times \frac{dA}{dM} \quad (4)$$

단, S : 만족, M : 방문동기, A : 선택속성

그리고 경로분석을 통해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식(1)을 전미분하여 전도함수(total derivate)를 구하면 식(3)과 같으며, 이것을 동기(M)로 미분하면 식(4)와 같다. 식(4)에서 동기(M)가 만족(S)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속성(A)에 의한 직·간

접효과를 구할 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각 만족별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겠다.

①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표 38]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서비스 만족은 ‘지식추구동기’, ‘감성적동기’, ‘역사적 가치’, ‘편의성’, ‘자원매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광객이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데 있어 동기와 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특히, ‘편의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게 되는 동기보다는 대상을 직접선택 하고자 하는 속성요인 중 대상과 관련된 접근성,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및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감성적동기’와 ‘지식추구동기’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역사적 가치’나 ‘자원매력성’과 같은 대상에 대한 무형적인 가치나 자원의 매력성보다는 서비스 만족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대상자원에 대한 일체감 및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느끼거나 지적인 동기에 해당하는 문화에 대한 삶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일수록 높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38]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서비스 만 족	지식추구동기	.148	.060	.148	2.461	.014**
	감성적동기	.149	.058	.149	2.584	.010**
	역사적 가치	.159	.063	.159	2.514	.012**
	편의성	.249	.053	.249	4.702	.000***
	자원매력성	.110	.056	.110	1.966	.050*
	$R^2=.236$ 상수=1.174 F=57.546 p=.000					

*p<0.1 ,**p<0.05, ***<0.01

그리고 방문동기와 각 선택속성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경로분석을 위한 변수들 간의 유의한 영향 요인들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역사적 가 치	지식추구동기	.482	.045	.482	10.709	.000***
	감성적 동기	.341	.045	.341	7.567	.000***
편의성	지식추구동기	.099	.053	.099	1.873	.062*
	감성적 동기	.156	.053	.156	2.933	.004***
자 원 매력성	지식추구동기	.151	.051	.151	2.957	.003***
	감성적 동기	.226	.051	.226	4.43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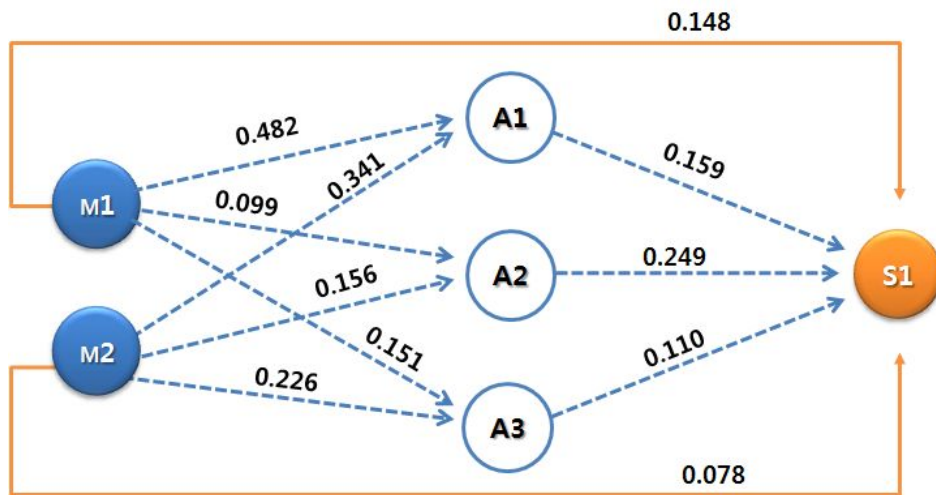
*p<0.1 ,**p<0.05, ***<0.01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의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0]과 같다.

[표 40]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직접효과 (방문동기→서비스만족)	간접효과 (방문동기→선택속성→서비스만족)	총효과
M1 → S1 0.148	M1 → A1 → S1 0.076	0.224
M2 → S1 0.078	M1 → A2 → S1 0.024	0.172
	M1 → A3 → S1 0.016	0.164
	M2 → A1 → S1 0.054	0.132
	M2 → A2 → S1 0.038	0.116
	M2 → A3 → S1 0.024	0.102

주 : S1(서비스만족), S2(이용성만족), S3(비용만족)
A1(역사적 가치), A2(편의성), A3(자원매력성)
M1(지식추구동기), M2(감성적동기), M3(외적동기)



주 : 간접효과 → 직접효과

[그림 8]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

위의 경로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만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지식추구 동기’, ‘감성적동기’와 ‘역사적 가치’, ‘편의성’, ‘자원 매력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편의성’이 가장 높은 영향관계로 나타났지만, 회귀분석

을 통해 요인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도출하면 ‘지식추구동기’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가 0.224로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편의성’이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식추구동기’와 같이 같은 동기라도 선택속성에 따라 총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구성원들이 ‘지식추구동기’를 가지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상지를 선택하고 방문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방문자들에 비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인 활동을 동기로 하여 목적을 가지고 오는 방문객일수록 자신이 얻게 되는 지식의 가치나 가치적인 부분의 중요도를 더 높게 여김으로써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적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일수록 관광객들은 관광지 방문에 있어 더욱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성적동기’와 ‘서비스만족’간의 직접효과는 0.078로 나타났지만 ‘역사적 가치’와 ‘편의성’을 매개변수로 작용한 간접효과는 각각 0.054, 0.038로 나타났다으며, 결과적으로 총효과는 ‘역사적 가치’를 매개변수로 했을 경우 0.132, ‘편의성’을 매개변수로 했을 경우 0.116으로 ‘편의성’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더 많은 영향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관광객들의 여러 방문동기들 가운데 자녀교육의 일환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동기인 ‘지식추구동기’ 혹은 책이나 문헌을 통해 역사적 감흥 및 몰입의 정도를 느끼기 위해 온 동기인 ‘감성적동기’ 일수록 제공되는 안내지도 및 홍보물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

으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서비스에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에 편의시설 이용이나 방문객 응대의 태도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대상을 접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영향요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관리적 운영에 있어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양한 형태로 인식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서적이나 문헌 등을 통한 자원마다의 스토리를 제공하고 자원 방문에 있어서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적, 해설적 기능을 문화유산 해설사나 안내홍보물을 통해 보다 더 쉽게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보완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표 41]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역사문화자원 방문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문동기 요인들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택속성은 ‘자원 매력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 매력성’이 역사문화자원 이용성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방문자들이 자원의 역사적 가치측면을 이용성의 의미(대상의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는 성질)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편의성’을 대상지 방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함으로써 ‘이용성 만족’에 영향요인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

과 같은 부분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이용성 만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환경적 요건의 변화가 왔을 경우 중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변수라 여길 수 있다.

반면에 ‘자원 매력성’이 주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의 방문객 인지에 의한 작용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과 같은 역사성이 내재된 문화자원일 경우 ‘이용성의 만족’ 결과를 통해 ‘자원 매력성’과 같이 보전이나 복원 혹은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동기를 가지고 온 관광객일수록 자원을 이용적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역사문화자원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 자원관리를 통한 차별화된 매력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41]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이용성 만족	지식추구동기	.176	.056	.176	3.169	.002***
	감성적동기	.135	.053	.135	2.538	.012**
	외적동기	.172	.050	.172	3.408	.001***
	자원매력성	.390	.052	.390	7.557	.000***
	$R^2=.236$ 상수=1.174 $F=57.546$ $p=.000$					

* $p<0.1$, ** $p<0.05$, *** $p<0.01$

다음은 방문동기와 각 선택속성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경로분석을 위한 변수들 간의 유의한 영향 요인들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이다.

[표 42] 방문동기와 자원매력 선택속성에 대한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자 원 매 력 성	지식추구동기	.151	.051	.151	2.957	.003***
	감성적 동기	.226	.051	.226	4.438	.000***
	외적동기	.303	.051	.303	5.93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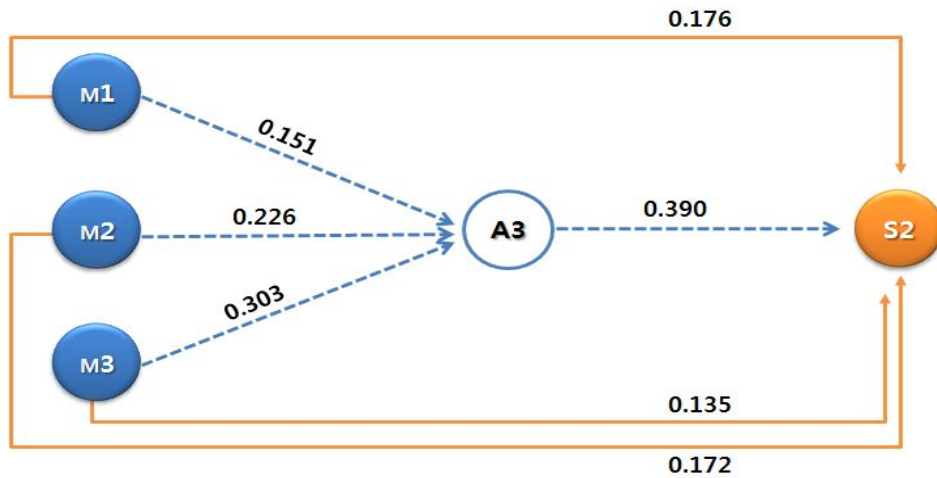
*p<0.1 ,**p<0.05, ***<0.01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의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의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3]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직접효과 (방문동기→이용성만족)	간접효과 (방문동기→선택속성→이용성만족)	총효과
M1 → S2 0.176	M1 → A3 → S2 0.058	0.234
M2 → S2 0.172	M2 → A3 → S2 0.088	0.260
M3 → S2 0.135	M3 → A3 → S2 0.118	0.253

주 : S1(서비스만족), S2(이용성만족), S3(비용만족)
A1(역사적 가치), A2(편의성), A3(자원매력성)
M1(지식추구동기), M2(감성적동기), M3(외적동기)



주 : 간접효과 → 직접효과

[그림 9]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이용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

다음의 경로모델을 통해서 이용성만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지식추구동기’가 ‘이용성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로 ‘자원 매력성’을 두었을 때는 ‘감성적 동기’가 ‘이용성 만족’에 0.260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이 대상을 방문함에 있어 역사적 감흥 및 유산에 대한 몰입감이나 일체감과 후세에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느낄수록 관광자원에 대한 특이성이나 유적의 예술성과 같은 매력성에서 심리적인 내적 감동을 느껴 이를 이용함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외적동기’도 직접적인 효과는 매우 낮았지만 ‘자원 매력성’을 매개변수로 가졌을 경우 일반적인 관광형태로 대상을 방문하였으나 사례대상지의 특이성과 자원의 활용적 측면에서 관련된 유용성 부분에서 매력을 경험하고 이용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되어져 직접효과에서 ‘지식추구동기’가

이용성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추구라는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자원 매력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원을 활용 한다는 유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총효과에서는 ‘지식추구동기’보다 ‘외적동기’가 더 높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지 자원의 매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향후 관리 운영에 있어 이러한 요소를 발견 및 발굴하여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역사 문화자원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동기 및 선택속성을 선행연구와 이론을 근거로 접근하였다. 특히, 동기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유산관광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동기항목을 도출하여,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동기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모든 요인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들에 사용되어진 유산관광동기 요인들의 결과치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상황적인 변수와 연구사례대상지 및 관광객들의 인식정도의 차이와 유산자원이나 역사적 사실에 국한된 선행연구들의 대상지와는 달리 지역주민과 밀접한 장소의 생활권 안에 있고, 인근에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된 지구 내의 대상지 선정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선택속성은 일반적인 선택속성항목에서 벗어나 매력속성요인 항목들을 토대로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요인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도출된 항목에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편의적 속성을 부가하여 최종 세 가지 속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례대상지에 국한된 소단위 평가항목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각기 다른 대상지의 연구항목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합하여 일반적인 역사문화자원의 선택항목을 도출하고 대상지 고유의 요소들을 통해 평가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만족은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여야하는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성, 비용에 대한 관광객 만족과 관광객 자신의 만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출된 설문항목을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역사문화자원 방문자 동기 및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식을 통해 파악된 표준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실증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각 측정 변수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성적 동기는 선택속성의 모든 요인에 영향관계가 높고, 지식추구동기는 역사적 가치와 자원매력성 부분에, 외적동기는 편의성과 자원매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객 만족에 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면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사이의 관계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은 관광객들의 방문동기 가운데 지식추구에 대한 동기 혹은, 문헌이나 책을 통한 몰입정도를 느끼기 위한 감성적 동기일수록 대상지 내에서 역사적 가치를 경험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에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아 보다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용 만족에 있어서 다양한 방문동기 요인들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매력성에 관한 선택속성이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만족 부분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인식이나 관광자원으로써의 요인이 더 중요하게 방문객에게 인지되어 편의성 이외에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만족은 특정요인에 대한 방문동기나 선택속성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로 작용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동기 유발인자와 내·외적인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소재 개발 및 자원의 매력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구하기 위해 선택속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을 경우를 살펴보면, 자원 자체의 매력성을 토대로 한 선택속성은 동기가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높은 효과를 나타내어주고, 어떠한 속성이 매개변수나에 따라 총효과는 같은 동기와 만족이라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이고 적합한 선택속성의 제공은 관광동기와 만족간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및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요구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서 서비스 및 이용성, 비용만족의 대부분은 자원자체의 역사성이나 매력요인 그리고 기반시설과 같은 편의성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기의 중요도에 따라 속성과는 별도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동기요인도 속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의 차이가 생겨남으로 인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속성요

인을 중요 작용요인으로 염두에 두고 계획적인 방안대책이 필요하겠다. 특히, 대능원과 같은 공원화된 유적자원 개발에 있어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해설매체를 이용하여 생생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거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감동이나 지식에 대한 매력을 강조하게 되면 더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관광객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설을 부가하여 대상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역사문화자원은 교육적인 해설이나 홍보에 따라 동기나 속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을 증진시키며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인 해설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대상자원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은 30~40대의 가족단위가 가장 많이 찾고 높은 고학력자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 월평균소득수준 이상의 방문객들이 주류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내에서 소비되어지는 비용은 5천원 미만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 측정되었다. 이는 사례대상지인 역사문화자원 부근에 소비활동을 일으킬 매력요소가 현저하게 낮아 고급문화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차별화된 요소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동기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지만 선택속성인 ‘자원 매력성’에 따라 관광객들의 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 자원의 매력에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매력성의 부각을 통한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통한 소비

촉진요소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유인 즉, 역사문화자원은 관광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고 관광은 이를 통해 보호 및 보존을 가능하게 할 자금을 만든다. 그래서 관광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유지관리하지 않는다면 지역관광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적 측면에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유적 자원의 필요 및 추가 기능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관광객들의 향후 관리적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관광객의 대부분은 역사문화자원의 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기능이나 교육과 관련된 체험시설을 추가하기를 바라며 관광자원화 시키길 원하면서도 대상지의 추억적인 요소 및 고풍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소극적인 개발을 통한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즉, 관광의 성장에 앞서 환경의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의 증가에 따라 공급의 증가를 맞추는 것은 결국 문화적인 자원의 한정된 가용성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역사문화자원의 손상 억제시키고 최대의 효율을 가져오는 방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이슈와 새로운 시도에 있어 적합한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주된 향후 과제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관리체계 보다는 역사성을 띤 중요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바탕이 된 새로운 자원 보호 시스템을 갖추거나 지자체의 관리보호프로그램 매뉴얼과 같은 새로운 관리체계의 시도가 필요하겠다.

결국 관광객과 지역민들 사이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문화의 시각적인 매력을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환경의식의 변화도구로

방문객들의 동기 및 속성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 관리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 향후 방문객 유인 전략과 장기적인 관광성장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요자료로 사용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보전 관리방안에 관한 개발계획의 중요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은 한정된 연구 조사대상지와 시점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상과 다른 시점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관광객의 내적인 동기와 속성 만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들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점을 보존과 자원의 활용 및 이용적 측면에서 원형의 현대화된 재해석을 통한 보전적 개발로 인지된 양자적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에 관한 다각적인 입장에서 세분화되고 다변화된 영향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관람 전과 관람 후의 기대도 및 관광객 만족의 증진정도를 검토하여 향후연구에서는 정량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국내 논문 및 문헌

- 강동진(2006). 세계문화유산의 완충구역 관리 개념 정립. 『국토계획』, 41(1): 7-20.
- 경주시(2004).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 경주시·문화관광부(200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
- 고동우(2004). 자가지역 이미지에 근거한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과정. 『관광학연구』, 28(2): 213-230.
- 고호석(2005). 지역문화축제 관광객의 선택속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7(1): 101-119.
- 곽동윤(2006). 일본 지방도시 사와라시의 역사경관재생을 통한 중심시가지 재생전략과 방안. 『국토계획』, 41(7): 97-109.
- 곽행구(2006). 나주시 읍성공간 역사문화경관의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62-70.
- 국토연구원(2007).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권상준(2000). 도시의 쾌적성과 도시경관계획. 『호서문화연구』, 14: 67-110.
- 권정택(2000). 관광이벤트의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호(2001).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1): 253-271.
- 김규호(2002). 관광의 문화적 영향과 유교문화자원: 그 관계와 개발이념에 대한 고찰. 『관광학연구』, 26(2): 11-30.
- 김기호(2006). 역사경관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국토계획』, 41(5): 131-146.

- 김덕경·최영준·윤중업(2004). 관광동기에 따른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8(2): 95-111.
- 김사현(200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자: 그 개념과 특성에 관한 시험. 『관광학연구』, 29(1): 9-27.
- 김세천(1991). 역사경관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연구』, 2: 61-75.
- 김수진(2004). 온천리조트 이용고객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김세용, 양윤재(2002). 미관지구의 운용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6): 7-20.
- 김일룡(2000). 제주지역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전문대학 논문집』, 1-44.
- 김정옥(2007). 『관광자원관리론』. 백산출판사.
- 김태희(2003). 문화관광축제의 방문자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자·엄서호(1997). 휴가목적지 선택결정 요인으로서 지각행동조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 11-29.
- 김훈구(1995). 한국의 문화관광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기전연대』, 95.
- 김홍운·김사영(2005).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 김희정(2004). 남한강 연구 기획논문집 : 남한강 유역 무형문화재 및 민속관련 자료 분포 현황. 『한국화 연구』, 9: 83-133.
- 노정철(2003). 관광정보시스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퍼지수 적용. 『관광레저연구』, 14(3): 267-286.
- 민창기(2001).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관광동기 분석. 『관광학연구』, 24(3): 249-265.
- 박동진·손광영(2004). 관광동기 이미지 기대 만족 및 충성도간의 구조적 관계: 안동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29(3): 291-313.
- 박명희(1999). 문화관광자원해설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1(2): 23-47.

- 박석희(1994). 관광지 이미지에 관한 지각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석희(2002). 만족도와 이미지 관여도 친숙도간의 관련성 분석. 『경기관광연구』, 6: 25-47.
- 박성수(1999). 문화관광자원이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31: 211-242.
- 박정민(1995). 관광객의 국외여행상품선택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규·엄서호(1998).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317-324.
- 변우희·노정철·김기태(2005). 고속철도시대의 경주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루트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9(1): 69-87.
- 변우희(2007). 문화관광조사의 방법론적 대안 : 퍼지시스템 개념의 적용. 『관광학연구』, 31(1): 77-98.
- 사학(2002). 역사의 개념과 역사의식.
- 서용은(2003). 덕수궁의 문화관광자원 특성에 관한 연구:덕수궁 방문객을 중심으로. 세종대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국섭(2005). 골프장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와 골프수요 결정요인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대현(1993). 『관광마케팅론』. 일신사
- 신도길(1990). 국제관광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관광자의 관광의사결정행위의 분석. 『경상과학』, 11: 261-272.
- 신상섭·노재현·한광수(2005). 전통경관 정체성 진단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탐방 네트워크 개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2): 90-100.
- 신지은(2006). 역사문화관광지의 교육적 효과분석:창덕궁 방문자의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훈(2006). 해외 행정도시 조성 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 심승희(1995). 역사경관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지리교육논문』, 43-74.
- 안유정·이만형(2006), 역사문화보존지구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 조성: 중국의 북경 사합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121-127.
- 안윤지(2003). 문화관광자원의 매력속성과 자원해설이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동석(2005). 고도보존법과 향후 과제 . 경주역사문화특별시조성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 41-52.
- 오민근(2003). 마을 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활성화 :일본 카네야마마찌를 중심으로. 『문화도시문화복지』, 148: 72-75.
- 오세경·조홍석·김정동(2001). 공주시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유형 분석. 『국토계획』, 36(5): 225-239.
- 오정학·김유일(2001). 주제공원 이용자의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3): 285-306.
- 유기준(1997). 공주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분석. 『여행학연구』, 6: 179-201.
- 유수현·진병렬(2002). 경복궁의 관광자원적 가치에 관한 연구. 『문명연지』, 3(3): 109-135.
- 이경모(2005). 『SIT 미래관광의 대안모색』. 대왕사
- 이귀옥(2002).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16: 141-161.
- 이근(1985). 『관광자원론』. 학문사
- 이명자(2002). 관광이미지가 관광동기 관광경험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동경 거주 일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춘(2003).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 이선희(2005). 문화관광해설자의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따른 관광자의 관여도와 만족도.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양섭(1994). 관광자원의 개발 보전재원 확보방안 연구: 관광자원세제 도입을 중심으로. 『관광개발논

총』, 3: 67-112.

이영경·민창기(1998). 경관경험의 향상을 위한 문화·역사 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2): 155-165.

이용두(2003). 송탄관광특구의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용규·김은희(2004). 『관광과 문화』. 대왕사.

이인배·여정태(1998). 충남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유형화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64-71.

이인재(2005).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1): 251-266.

이은미(2005).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동기가 관광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합천 촬영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장주(1997).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진도 영등축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장춘(1974). 관광자원의 시간성·공간성·기술성과 관광권설정의 기준. 『관광연구』, 4(1): 103-119.

이장춘(1974). 관광자원조사와 관광권설정에 대한 접근. 『관광연구』, 4(2): 51-68.

이장혁(1998). 사용자 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논문집』, 4: 419-431.

이정규·김상희·반정화(2001). 문화관광객 세분시장의 구매행동 분석: 추구편익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3(2): 1-21.

이정전(1996). 환경가치 추정의 의의와 한계. 『환경과생명』, 10: 185-197.

이진희(2006). 『장소마케팅』. 대왕사.

이창언(2007). 동해안지역 반촌 동제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 영해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1: 309-336.

이춘근(2000). 문화의세기·전통의 문화로. 『월간해인9』. 해인사.

- 이항구(1993). 『관광법리학논총』. 백산출판사
- 이혜연(2001). 문화교육이 방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정(2003). 역사경관보전을 위한 면적문화재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중, 손준호, 조은지(2006). 도삼리(道三里) 유적. 『매장문화재 연구총서』, 20: 1-321.
- 이후석·오민재(2006).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이미지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한산성과 수원화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0: 1-15.
- 조명환(2003). 휴양관광지와 유적관광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과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5(1): 183-199.
- 조명환·양복석(2004).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김해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6(2): 9-27.
- 조세환(2006).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참조(경주의 경관을 읽다).
- 조용기(2005). 고도의 역사적경관 보존 정비에 관한 연구. 경주역사문화특별시조성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 53-78.
- 조윤식·김옥희(2005). 전시회 방문동기·전시회 선택속성·방문객 만족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17(1): 25-43.
- 주종대(2007). 『문화관광론』. 대왕사.
- 주현식(2000). 환경친화적 이미지형성요인이 관광목적지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2): 103-120.
- 최석호(2006). 관광의 세계화: 유산관광개발 한·영 비교사례연구. 『관광학연구』, 30(3): 29-50.
- 최정민(2005).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7): 25-41.

- 최종희(2007).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 72-79.
- 하광수(2000). 주재공원 방문자 만족과 방문 후 행동의도 결정요인.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종완(2006). 농촌관광동기·태도가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관광공사(1995). 문화관광의 개념과 발전방향. 『관광정보』, 257: 51-59.
- 한국관광공사(2006). 국민여행실태조사(상반기) 순수관광목적 방문지역별 보고서.
- 한상열·이병인·이영경(2006). 전통 사찰의 이용 및 보존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 설악산 신흥사와 가야산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4: 84-92.
- 한숙영·김사현(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3): 209-224.
- 한상복·이문웅·김광익(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범수·김사현(1994). 관광위락자원 가치추정방법 고찰:헤도닉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여가산업연구』, 5: 63-82.
- 현용호·한상현·허향진(2005). 친숙도에 따른 관광지 이미지 방문만족 재방문의도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29(1): 147-167.
- 황기원(2005). 역사도시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경주역사문화특별시조성에 관한 시민 대토론회. 11~28.

* 국외 논문 및 문헌

- Alf H. Walle(1998). Cultural Tourism a strategic focus.
- Ashworth, G.J. and de Haan, T.Z.(1985). The tourist-historic city : a model and initial application in Norwich. U.K., Field Studies Series 6(GIRUG, Groninren).
- Ashworth, G.J. and Tunbridge, J.E. (1990). The Tourist-historic city. Belhaven Press, New York.
- Ashworth, G.J.(1994). National and regional tourism planning E Inskeep Routledge. London.
- Attoe, W. O.(1979). Historic Preservation im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297-319. Edited by A. J. Catanese and J. C. Snyder 2n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88.
- Baker, D. A., & Crompton, J. L.(2000).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785-804.
- Beard J. G. & Raghed, M. G.(1987).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2-23
- Biran A.,Poria Y. and A. Reichel(2006). Heritage Site Management: The Link Between Visitors' Pre Visit Perceptions.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Anatolia, 17(2): 279-304.
- Bonik and Richards (1992). How to Market Tourist Attractions,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 Practical Guide to Maximising, Visitor Attendance and Income.
- Bowen, D. & Jackie, Clarke.(2002). Reflection on Tourist Satisfaction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215-220.
- Burckhardt, Jacob(1867). Kugler's Geschichte der Baukunst.
- Carr, Edward Hallett(1961). What is history?
- Cohen, E.(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las of Tourism Research, 15(3):

371-386.

Crompton, J. L.(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ruism Research*, 28: 16-20.

Cronin, J. J. Jr and S. A. Taylor(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3): 55-68.

Dann, G. M. S.(1977). Anomie, ego-enhancement & tourism. *Annals of Toruism Research*, 4: 184-194.

Fayos-Sola, E (1997). An Introduction to TED-QUAL: A Methodology for Quality in Tourism Education and Training. 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Madrid.

Garner, W. C.(1993). Image Formation Process. *Communication and Channel systems in Tourism marketig*. New York : Haworth Press, 191-215.

Getz, D. (1997). *Event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ew York: Cognizant Communication Corp.

Godbey, G.(1981). *Leisure in Your Life : An Exploration*. CBS College Publishing, 1-23.

Goodman, K. (1967).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 game. *Journal of the Reading Specialist*, 5: 126-135.

Gunn, C. A.(1972). *Vacationscape*. Texas : University of Texas Press.

Hall, C.M. & Zeppel, H.(1990). Cultural and heritage tourism: The new grand tour?. *Historic Environment*, 7(3-4): 86-98.

Hunt, H. K.(1977). CS/D-Overview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455-488. In H. K. Hunt(ed).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275-299.

Iso-Ahola, S. E.(1984).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ruism Research*, 9(2): 256-262.

J. Douglas Porteous(1987). 환경과 행태

- J. H. Westbrook(1980). Problems with residual and additive elements and their control through specifications. *Resource Recovery and Conservation*, 4(4): 369–393.
- J. R. Brent Ritchie and Michel Zins(1978). Culture as determinant of the attractiveness of a tourism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252–267.
- John G. Carlson and Richard M. Wielkiewicz(1976). Mediators of the effects of magnitude of reinforcement. *Learning and Motivation*, 7(2): 184–196.
- Joseph, S. Chen and Dogan Gursoy(2001). An investigation of tourists' destination loyalty and pre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3(2): 79–85.
- Karpodini–Dimitriadi, E. (1999). Developing cultural tourism in Greece. in: Robinson, M. & Boniface, P. (eds). *Tourism and cultural conflicts*. Wallingford: CAB International, 113–127.
- Keith Hollinshead(1990).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2): 292–294.
- Lundberg, D. E.(1990). *The Tourist business*. Boston: Publishing Company.
- Mark P. Hampton.(2005). Heritage·Local Commun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3): 735–759.
- McCabe, A. S.(2000). Tourism motivation proces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4): 1049–1052.
- McClung, W. Gordon(1991). Theme park selection : Factors Influencing Attendance. *Tourism Management*, 12(2): 132–140.
- Michael F (2002). *Yield Management at the Level of Tourism Destinations*. Destination Management and Destination Marketing: Conference for Practitioners and Students.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Phuket Campus, Thailand
- Mill, R. C. & Morrison, A. M.(1985). *The tourism system: An introductory text*. New Jersey: Prentice Hall.

- Mohr, K., Backman, K. F., Gahan, L. W. & Backman, S. J.(1993).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3): 89-97.
- Moscado, G. M., & Pearce, P. L.(1986). Historic theme parks: An Australia experience in authenticity. *Annals of Travel Research*, 22(1): 67-85.
- Myerscough, J.(1988).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London: PSI
- Natan Uriely, Aviad A. Israeli and Arie Reichel(2002). Heritage Proximity and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3): 859-861.
- Neo, F. P.(1987). Measurement specification and leisure. *Leisure Science*, 9(3): 156-166.
- Nuryanti, W.(1996). Heritage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249-260.
- Oliver, Richard L.(198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 in retail setting. *Journal of Retailing*, 25-48.
- Ordasli, A.(2000). *Tourists in Historic Towns*. London : Taylor and Francis Group.
- Oxford-Hachette(1994). *The Oxford-Hachette French Dictionary*. Oxford and Paris: Oxford University Press and Hachette Livre.
- Pizam, A., Neuman, Y & Reichhal, A.(1979). Dimension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Destination Are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6: 262-268.
- Poria Y.,Butler R. and D. Airey(2003). The Core of Heritage Tourism: Distinguishing Heritage Tourists From Tourists in Heritage Pla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1): 238-254.
- Poria Y.,Reichel R. and A. Biran(2006). Heritage Site Management: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162-178.
- Prentice. R.(1993). *Tourism and heritage attractions*. London: Routledge.

- Russo, A.& Borg, J.(2002). Planning considerations for cultural tourism : a case study of four European cities. *Tourism Management*, 23: 631–637.
- Satori, G. (1970). Concept Misin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1033–1053.
- Tassell, C. & M. Tessell(1990). The Tasmanian Rural Landscape. *Heritage Australia*, 9(4).
- Uysal, M. & Hagan, L. A. R.(1993).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VNR's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Var, T., Beck, R. D. & Loftus, P.(1977). Determination of Touristic Attractiveness of the Touristic Areas British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15: 23–29.
- W. Fred van Raaij and Dick A. Francken(1984), Vacation decisions, activities, and satisfac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1), pp.101–112.
- Wahab, s.(1997). balancing culture heritag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ourism. In *tourism and heritage management*. yogyakarta :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 Weiler, B. & C.M. Hall(1992), *Special Interest Tourism*, London: Belhaven Press.
- Wiendu Nuryanti(1996), *Heritage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 No. 2, pp. 249–260.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pp.262–278.
- Willian H. Ittelson, Harold M. Proshansky, Leanne G. Rivlin, Gary H. Winkel(1995), *environment psychology*.
- Yoram Neuman, Abraham Pizam and Arie Reichel(1980), Values as determinants of motivation : Tourism and other career cho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7(3), pp.428–442.

<설 문 조 사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관광과 관련한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편을 드리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 9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연구 자 : 임 지 은

지도 교수 : 김 규 호

Tel : 010-8484-5454

E-mail : aak20@naver.com

[역사문화자원 방문동기]

1. 역사문화자원을 어떠한 동기로 방문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1	2	3	4	5
2	주변자연환경을 감상하기 위해	1	2	3	4	5
3	주변의 풍부한 볼거리가 많아서	1	2	3	4	5
4	세계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1	2	3	4	5
5	역사적 감흥(감동)을 느끼기 위해	1	2	3	4	5
6	유산자원에 대한 일체감(몰입)을 느끼기 위해 (서적이나 문헌 자료를 통한)	1	2	3	4	5
7	역사문화자원이 전승되어야 할 유산의 일부라고 느껴서 (나의 유산의 일부라고 느껴서)	1	2	3	4	5
8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1	2	3	4	5
9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추구를 위해서	1	2	3	4	5
10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신라문화 등)	1	2	3	4	5
11	역사문화자원의 배경(신라시대)역사에 관해 배우길 원해서	1	2	3	4	5

[대능원 선택속성]

2. 대능원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을 중요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	대능원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1	2	3	4	5
2	대능원 편의시설(벤치 및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고분 공원)	1	2	3	4	5
3	주변에 불거리와 연계성이 좋아서	1	2	3	4	5
4	대능원 접근이 용이해서	1	2	3	4	5
5	신라시대 김씨왕의 계보(신라 김씨왕 38의 묘제와 미추왕 릉)을 알 수 있어서	1	2	3	4	5
6	신라시대 유적 유물의 뛰어난 세공 및 축조기술을 보기 위해 (금 세공 기술 과 무덤 축조 기술)	1	2	3	4	5
7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이며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사적지이기 때문에	1	2	3	4	5
8	독특한 묘제문화(무덤양식 및 금관:부활의상징)를 보기 위해서	1	2	3	4	5
9	신라시대 고분의 유일한 전시시설을 보기 위해서(천마총)	1	2	3	4	5
10	고분군집으로서 독특하게 공원화되었기 때문에	1	2	3	4	5
11	주변 자연환경 및 조형물과 조화롭기 때문에 (주변 식재 및 돌담 등)	1	2	3	4	5
12	대능원 내 유적의 예술성을 보기 위해서 (고분, 천마도, 금관 등)	1	2	3	4	5
13	대능원 내 천마총의 재현 및 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1	2	3	4	5

[대능원 만족]

3. 대능원을 방문하시고 귀하가 느끼시는 대로 평가하시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	대능원 관리자(직원)의 방문객을 응대하는 태도가 친절했다.	1	2	3	4	5
2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이용에 불편함이 없었다.	1	2	3	4	5
3	대능원의 문화유산해설사의 서비스가 잘 되었다.	1	2	3	4	5
4	대능원 내 안내지도 및 홍보물의 해설이 잘 되어 있다.	1	2	3	4	5
5	고분전시시설(천마총)을 이용하는데 쾌적했다(조명,환기,설비).	1	2	3	4	5
6	대능원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접근성).	1	2	3	4	5
7	주변 불거리와 연계가 잘 되어 있었다(박물관,첨성대 등).	1	2	3	4	5
8	대능원 공원관리가 잘되어 있었다.	1	2	3	4	5
9	천마총 관람시간이 적절하였다.	1	2	3	4	5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0	대능원의 입장료가 적절하였다.	1	2	3	4	5
11	각종 식음료 이용비용이 적절하였다.	1	2	3	4	5
12	각종 기념품 비용이 적절하였다.	1	2	3	4	5
13	주차이용비가 적절하였다.	1	2	3	4	5
14	대능원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4. 귀하께서는 대능원을 방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귀하께 생각하시는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기 능	① 산책(탐방)/휴식기능 ② 교육/관찰/체험기능 ③ 광장 및 공원기능
해 설 기 능	① 생산/판매기능 ② 공연 및 문화공간기능 ③ 문화유산해설사 증원
관 방 방 안	① 현 그대로의 돌담 ② 돌담 철거 후 공원화 ③ 돌담길의 부분개방

5. 귀하께서는 대능원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① 혼자서 ② 가족 및 친지 ③ 친구 및 연인 ④ 학교 및 직장동료
⑤ 여행사 단체관광 ⑥ 친목단체/동호인모임 ⑦ 기 타()

6. 귀하가 대능원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 ① 전세버스 ② 시내버스 ③ 자가용 ④오토바이 ⑤ 자전거 ⑥ 기타()

7. 대능원 방문을 통해 1인당 지출한 비용은?(입장료,기념품,식음료 등 비용)

- ① 5천원 미만 ② 5천원~1만원미만 ③ 1만원~3만원 미만
④ 3만원~5만원 미만 ⑤ 5만원 이상

[일반적 사항]

성 별	연 령	학 력	직 업	월소득수준	관광객의 거주지 / 방문횟수
☐ 남 ☐ 여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중졸 ☐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 졸 ☐ 대학원졸	☐ 학 생 ☐ 주 부 ☐ 전문직 ☐ 자영업 ☐ 회사원 ☐ 공무원 ☐ 기 타 ()	☐ 100만원 미만 ☐ 100~200미만 ☐ 20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만원 이상	☐ (도/광역시) ☐ 처음 ☐ 2~3회 ☐ 4~5회 ☐ 6~10회 ☐ 10회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influence of the tourist's satisfaction for the motive and
the selection attribut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The case of a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GyeongJu city -

Ji Eun Lim

Department of Tourism science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Kyu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the tourist's satisfaction for the motive and the selection attribut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it's based on documentary and demonstration studies by priority sequence studies and theories.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motive, the result of which was found on propriety examination with motive factors for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abstracted from heritage tourism based on the priority sequence studies.

The result of this study which all factors were in positive effect was exposed, and however it was different from priority sequence stud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result was depended to variety of the situation,

difference of research site and tourist's recognition from priority sequence studies and site selection which was in local life zone of resident and have a large of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compared with that of priority sequence researches.

The selection attribute is classified for 6 factors on the basis of charming attribute factors departing from general selection attribute factors, and has deduced two fact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 of selection site. And final 3 factors represented with accommodation factors based on deductive indexes.

This showed that evaluation indexes of gener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rough the unique factors of research site based on deduction of selective indexes by generalizing study indexes of different study site through priority sequence study, and it is different from subunit valuation indexes limited to sampling site of priority sequence studies.

And satisfaction considers special qual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that should approach in synthetic point of view with service, utilization, tourist's satisfaction for expense and tourist's own satisfaction.

This study researched by processes that actual proof analysis which examine investigating question for tourists who visi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frequency analysis which research a special character of population statistics, factor analysis which evaluate authenticity and propriety of investigating question item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verify research problem, and finally path analysis which analyz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for visitor motive and selection attribut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using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that is grasp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wa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lationship between visit motive and selection attribute for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each measured variable, there were deduced as knowledge pursuit motive has positive relationship on historical value and

resource attraction, external motive has positive relationship on convenience and resource attraction, and sensitivity motive has high effect of relationship for all factors of selection attribute.

Second, service satisfaction has more positive effect relation in tourist's satisfaction of historical cultural resource that satisfaction motive about knowledge pursuit among visit motive of tourists or sensitivity motive about experience through literature or book than that of accommodation use.

And, factors affect in satisfaction various visit motive in use satisfaction, and selection attribute about resource attraction would enhance value as tourism resources on practical use of resource.

By expense, value awareness for history culture resource or factor as tourism resources is recognized to visitor more importantly than part that is chargeable in expense satisfaction, and there have been appeared no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except convenience.

For reason that visit motive and selection attribute for specification factors is affecting differently, and acting by importance factors in general satisfaction for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it w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grasp tourism motive induction factors and interior and exterior selection attribute and to find development of differ item and attractive factors of nature for revitalization of for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Third, in the case of selection attribute acted by parameter for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t is realized that selection attribute on the basis of resource attractive has high effect than siblings affects directly in satisfaction, and all effect were appeared on differ in same motive and satisfaction as parameter that we examine in case.

Through this research, offer of detail and suitable selection can see as key factor maximizing of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motive and satisfaction, and may contribute in continuous visitor invitation and activation.